

# 제329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11월6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3. 2015년도 예산안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심사된 안건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 ..... 1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3. 2015년도 예산안 ..... 3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09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우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을 처리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

이 오랜 기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 특별법안이 세월호 침몰사고로 고통받고 계시는 유가족 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경대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경대수 위원님!

○경대수 위원 제가 세월호특별법 관련해서 TF팀 간사로 일했기 때문에 기록을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이 특별법 중에서 27조에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53조에 과태료 1000만 원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현재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위험이다 이런 결정이 난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과태료 부과는 위험 소지가 있으니까 반대한다고 처음에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여야 협상과정에서 야당 측에서는 이게 위험 소지가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 가지고 합의과정에서 그냥 하여튼 이렇게 법안에 넣었습니다만 기록을 위해서 명백하게 이 부분 저희는 아직도 위험 소지가 있다 이 점을 밝힙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정안을 내라는 건 아니지요?

○경대수 위원 아닙니다. 의견만 좀……

○위원장 김우남 기록을 위해서?

○박민수 위원 법사위에서 정리하면 되니까.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특별법안의 체계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09시44분)

○위원장 김우남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이 간사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법률안 및 법률안과 직접 관련되는 의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 등을 심사하는 예

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을 심사하는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를 우리 위원회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및 소위원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이와 같이 간사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효대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대 위원 안효대 위원입니다.

좀 늦어진 만큼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에게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엽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 관례에 따라서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심사 일정도 상당히 촉박한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농업예산의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농업예산의 심사가 정말 밀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하시게 된 소위원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유성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재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재 위원 청원심사소위원장 맡은 이이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을 잘 받들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원들께서는 내실 있는

소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 3. 2015년도 예산안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09시47분)

○위원장 김우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필 농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쌀 관세화, 영연방 FTA, 한중 FTA 협상 등 전례 없는 개방화와 더불어 AI 등 가축 질병, 농촌의 영세·고령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농업·농촌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정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농업의 6차산업화, ICT융복합·창조농업, 농식품 수출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농촌이 활력을 되찾고 농업인의 행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소통과 배려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3.4% 증액된 14조 940억 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총 6개 회계의 일반지출 규모는 8조 64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372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조 298억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1조 5421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조 3833억 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744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74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7개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7조 4415억 원이며 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5조 45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조 8527억 원, 농지관리기금 1조 3507억 원, 축산발전기금 1조 1498억 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5020억 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7024억 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805억 원, 양곡증권정리기금 703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쌀시장 개방에 따라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의 단가를 ha당 10만 원씩 인상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유기농업직불금을 현행 5년에서 3년간 연장하였으며 들녘경영체 육성, 쌀 소비활성화 등 쌀산업 발전대책에 1조 43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호주 및 캐나다FTA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축개량지원 477억 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632억 원, 축산물이력제 223억 원, 한우직거래활성화 120억 원, 축산물수출원료 구매자금 260억 원 등 1조 7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당국은 확장적 재정편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식품부 공직자들은 농산물의 시

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현장의 농업인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다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높은 경륜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임명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연태 소비과학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과 부문별 주요사업 재원배분 내역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쪽, 먼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 및 기금 편성방향은 국정과제, 지방공약, 경제혁신 3개년계획, 창조경제, 농발계획 등의 차질 없는 지원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을 보고드리면 효율성을 기초로 한 소통과 배려의 농정 실현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획일적 경쟁력 강화 투융자에서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농정으로 전환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영세고령농에 대한 소득·복지지원도 병행하고 생명·안보산업, 일터·쉼터·삶터로서의 농업·농촌에 대한 생산자·소비자의 가치 공감을 전제로 미래지향적 투자를 확대합니다.

4쪽입니다.

과학적·맞춤형 농정 실현을 위한 스마트 농정도 구축합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창조적 지방농정 지원을 확대하고 AI,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사인 안전 분야 예산을 확대하며 FTA,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등 시장 개방에 따른 축산·발농업·쌀산업 등 국내 농업의 경쟁력 및 체질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건전화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규모는 14조 940억 원으로 14년 대비 3.4% 증가하였고 분야별로는 농가소득·경영안정, 식품업, 농촌복지 증진, 농촌개발, 농업생산기반 조성, 양곡관리 농산물 유통은 증가하였으나 농업체질 강화는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일반지출 규모는 8조 6417억 원으로 14년 대비 3.4%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7조 4415억 원으로 14년 대비 2.4% 증가하였고, 일반지출은 5조 4523억 원으로 14년 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9쪽의 참고 1부터 15쪽의 참고 7까지의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사업 재원배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인 유형별·맞춤형 지원 강화로 전업농에 대해서는 수출, 첨단 농업지원을 강화합니다.

농업 분야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농식품산업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식품 ICT 융복합 촉진 등 정보화사업을 지속 지원합니다.

20쪽입니다.

현안 해결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 전략산업인 고부가가치 종자·생명산업을 육성합니다.

중소농에 대해서는 6차산업, 공동경영 지원을 강화합니다.

농업과 2차·3차 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농식품 육성 패러다임을 확산하고자 생산·가공·관광 등을 융복합한 6차산업 활성화 지원, 특화품목 등 농촌 부존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합니다.

21쪽입니다.

공동경영 지원 강화 조치로 품목별 공동체 경영 활성화 및 영농 규모화 지원, 산지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생산자단체 중심으로의 유통계열화를 촉진합니다.

영세고령농에 대해서는 소득안정, 복지 지원을 강화합니다.

소득안정 강화 조치로 쌀소득보전고정직불은 평균 지급단가 ha당 100만 원 및 농지전용 등에 따른 지급대상면적 감소추세를 반영하였고 밭농업직불제는 고정직불 도입을 위해 지목을 확대하여 사실상 밭까지 포함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등을 고려한 공익형 직불을 내실화하고 FTA 대응 소득 보전 및 폐업 지원은 실집행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경영안정 지원 강화 조치로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특히 농업경영회생자금, 농기계구입자금·귀농귀촌 및 6차산업 창업자금은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복지 지원 강화 조치로 농업인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복지 지원 확대, 농촌 취약계층 및 보육·교육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합니다.

24쪽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 농촌 정주 인프라 확충 및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귀농·귀촌 확대를 위한 체계적 귀농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확대합니다.

25쪽입니다.

재해 방지 등 농식품 분야 안전·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관리, 용수 개발 등 생산기반 정비를 지속 확충하고 말기반 정비 등 농업생산기반 구축 및 정비사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정책보험 및 피해복구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26쪽입니다.

가축질병 발생의 사전예방 및 발생 시 조기종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생산단계의 품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우수농산물 인증제 지원 강화, 국산 및 수입농산물 품질·안전성 관리 지원,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를 지원합니다.

27쪽입니다.

개방화 등을 대비한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쌀 관세화 이후 농가 불안감 해소 및 쌀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28쪽입니다.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한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속 지원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차질 없이 지원하며,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내실화합니다.

29쪽입니다.

기후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저탄소 농업을 추진하고 새만금 등 간척지의 미래지향적 개발 및 종합적인 영농기반을 정비하며 ODA 등 국제농업협력을 강화합니다.

3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 추진합니다.

도매시장, 사이버거래소 등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직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산물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노지채소 계약재배 및 농산물 비축 지원, 관측정보 고도화, 농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조절 지원을 확대합니다.

31쪽입니다.

끝으로 식품산업 진흥정책을 강화합니다.

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기초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를 위한 식재료 및 가공·외식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전통주·김치 등 전통식품의 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33쪽 이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해양수산부는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비전 아래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해양영토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고 수습에 매달리다 보니 당초 계획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내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지속되는 세계경제 불황, 세계 해운업계의 재편과 거대 선사의 지배력 강화 등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산업은 기후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어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활력 감퇴, 한중 FTA로 인한 시장 개방 압력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바다공간을 기반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시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에서의 안전 확보와 해운항만 산업, 수산업 등 관련 산업의 부흥, 후손들을 위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15년도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 해양수산부 세입은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 2659억 원, 수산발전기금 8434억 원 등으로

금년보다 603억 원이 증가한 2조 2667억 원이며 세출예산과 수산발전기금을 합한 총지출은 금년보다 2208억 원이 증가한 4조 6004억 원입니다.

이 중 세출예산은 4조 143억 원이며 수산발전기금의 사업비는 58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분야에 관해 말씀드리면 우선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예산을 금년보다 2005억 원이 증액된 1조 43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월호 사고 후속 대책으로 선박 현대화, 해양안전교육 및 장비 보강 등에 금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14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 후속 대책 외에도 방파제, 어항 등 해양시설물의 안전과 수산물 위생관리 등 수산물 안전, 태풍 등 각종 재해 재난에 대비한 투자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미래 유망 핵심기술에 대한 선별적 집중 투자로 해양바이오, 해양광물 개발 등을 차세대 주요 산업군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의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해양신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항만 및 어항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거점항만을 주변 여건과 전략에 맞도록 특화하여 개발하는 한편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항만배후단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자 수산물 생산기지인 어항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소득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수산업의 다변화와 어업인의 복지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중 FTA 등 수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단순 생산과 양식 위주로 영위되던 수산업을 가공·식품산업 등으로 다변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등 어업인의 수익이 증대되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업인의 복지를 강화하여 의욕 있는 젊은이들이 어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은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해양수산 분야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러 위원님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양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은 어디 가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기조실장이 지금 정부조직법 관련해 가지고 항만 VTS 논의가 필요해 가지고 안행부하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통과를 앞두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 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세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문해남 해양정책실장입니다.

201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 부문별 세출예산안 순입니다.

그러면 1쪽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국민들이 안전한 바다에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과 미래를 위한 해양산업 육성 및 수산업 진흥입니다. 이를 위해 해양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권역별 거점항만 개발을 통해 국가·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 선도 모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2쪽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해수부 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2조 2667억 원으로 2014년보다 6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입니다.

먼저 2015년도 해수부 세출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은 4조 6004억 원으로 14년 예산보다 22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부문별 세출예산 및 기금 총괄입니다.

해운·항만 부문 1조 6111억 원, 수산·어촌 부문 1조 9616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5쪽 해양환경 부문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환경 부문은 금년 대비 108억 원이 증액된 19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해양오염 최소화, 연안관리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6쪽은 해양환경 부문 세부내역입니다.

7쪽 수산·어촌 부문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산·어촌 부문은 금년 대비 623억 원이 증액된 1조 96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량진수산물시장 준공 소요를 반영하였으며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8쪽 수산·어촌 부문 세출예산안 계속입니다.

수산가공·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산업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어업재해보험 등 어업인의 경영 안전망과 어업인 복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어촌과 어항에 대한 개발과 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쪽은 수산·어촌 부문의 세부내역입니다.

10쪽 해운·항만 부문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운·항만 부문은 금년 대비 1059억 원이 증액된 1조 61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교육, 장비 보강, 시스템 개선 등 연안여객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를 금년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안전교육 확대를 위해 훈련장 및 해양안전체험관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해운·항만 부문 세출예산안 계속입니다.

연안여객 안전 강화를 위해 선박 현대화 자금을 확대하고 VTS 연계망 구축,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산항 신항, 울산신항, 인천신항, 광양항 등 동북아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목포항, 동해항 등 권역별 거점항만 개발을 지속하겠습니다.

12쪽은 해운·항만 부문 세부내역입니다.

13쪽 물류 등 기타 부문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금년 대비 191억 원 증액된 65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독도 관리, 국가해양관측망 운영 등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해양장비개발,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 기술개발 등 해양안전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은 물류 등 기타 부문 세부내역입니다.

15쪽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산발전기금 사업지출은 금년 대비 116억 원 증액된 58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비축사업과 어업인의 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정부안으로 제출된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조 224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2236억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4억 원 증가에 그친 것은 15년도에 완료되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지방이전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395억 원이 감액된 3462억 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이전사업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사업

비는 총 6894억 원으로 금년 예산6686억 원보다 20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374억 원,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423억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81억 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46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은 농가소득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보통신기술과의 융복합 기술개발 및 보급,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FTA 등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향상, 바이오 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 농촌 활력화 및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 분야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 농촌진흥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청의 2015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별 내역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 2015년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고객 중심·현장중심·정책중심의 예산 중점 투자, 창조경제, 국민안전, 삶의 질 향상 등 국정과제 우선 배분을 기본 방향으로 창조농업 지원 융복합 기술 개발·보급,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FTA 등 개방대응 경쟁력 향상, 바이오 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 농촌 활력화 및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를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3847억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255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이전 관련 중전부동산 매각대를 제외한 예산안은 84억 원으로 14년 예산 대비 5.6%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240억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이전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사업비는 3.1% 증가한 수준입니다.

6쪽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농업 지원 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해 3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 융복합 농업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분야에 154억 원,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지원 분야에 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이 분야에 12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쌀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 기술개발에 333억 원, 발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등 식량자급률 향상 기술개발에 6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 농식품 공급 기술개발 분야에 2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세 번째로 FTA 등 개방대응 경쟁력 향상 분야에 1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안정생산 및 경쟁력 제고에 621억 원, 축산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 분야에 493억 원, 안전 농축산물 수출기반 확대 분야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로 바이오 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13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명공학 기술 등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기술개발을 위해 1081억 원, 유용 발효 미생물 자원화 및 발효기술 실용화 등 농식품자원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2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연구단지 이전 및 지역농업연구 활성화 분야에 6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관련 연구기관 이전에 349억 원, 지역농업 연구기관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40억 원, 시험 연구활동 지원 및 이공계 인턴십 운영을 위해서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여섯 번째,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분야에 1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도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및 확산에 157억 원, 선진국, 국제기구 등과의 농업기술협력 분야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개발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확산 분야에 10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 및 지역특화기술의 현장 확산에 569억 원, 과학영농 지원 및 선제적 재해 대응을 위해 125억 원, 농업기술실용화 및 고객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여덟 번째,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 및 농촌 활력화 지원 분야에 총 7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촌 활력화 지원에 441억 원, 선도농가 육성 및 농가경영 개선에 102억 원,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 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아홉 번째, 농촌진흥사업 정보화를 위해서 1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분야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전북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262억 원이 감소한 37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는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다마는 자료로 같음하고 구두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산림청장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5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정부안으로 제출된 산림청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는 8521억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7923억 원보다 7.5%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조 9325억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1조 8651억 원보다 3.6%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740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844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300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44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산림 예산은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 복지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고 국정과제 이행 등

산림 분야 사업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림자원의 육성과 가치 증진을 위해 420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산림휴양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642억 원을 반영하였고, 셋째 임업인 소득 증대 지원과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에 338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방지와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을 위해 618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섯째 국제산림 협력 및 녹색 R&D 투자와 정보화, 통계 등 산림 행정 성과관리를 위해 29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2015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2015년 예산안 방향, 세출예산안 개요, 주요 사업 예산의 세부 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방향은 임업인·국민이 숲을 일터, 쉼터, 삶터로 활용토록 뒷받침하고 산림자원 관리, 임산업 발전, 산림서비스 증진, 생태계 보전 분야의 선순환 정립에 두었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9325억 원으로 금년 예산 1조 8651억 원 대비 3.6%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별 투자 비중은 산림자원 가치 제고를 위해 산림자원 육성에 31%, 산사태 등 재해방지를 위한 산림자원 보호에 30%, 산림복지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 이용에 24%, 국제 산림 협력 및 산림행정 지원 등 기타 분야에 15%를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안 세부 내역입니다.

첫째, 산림자원의 육성 및 가치 증진을 위해 금년보다 1.8% 감소한 4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는 현장 위주로 내실화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 확대 및 대리경영을 통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 모델 제시를 위해 정책숲가꾸기 2082억 원, 공공산림가꾸기 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과 지역특화림 조성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수준인 9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우량종묘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비용절감·품질 제고를 위한 양묘장 시설현대화 추진을 위해 2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해 14억 원을, 사유림 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 7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는 금년보다 2.6% 감소한 26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산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123억 원을, 산림휴양 인프라 보완·확충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운영에 330억 원, 산림휴양시설 조성·보완에 3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산림을 국민 건강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치유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성·운영에 342억 원, 치유의 숲 조성·운영에 165억 원, 산림치유 지도자 양성 및 활용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촌역량강화, 산림문화 지원과 국립수목장림 신규 조성을 위해 43억 원을 편성하였고 숲해설가 등 맞춤형 고용을 통한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106억 원을, 그밖에 국립산악박물관 조성·운영, 숲길 관련 사업에 3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숲이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지 도시숲 조성 등에 41억 원, 지자체별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사업 등에 6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산림산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금년보다 1.6% 증액된 33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사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임도시설에 1487억 원,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55억 원, 임업기능인 양성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지원하고 국유림 목재 생산을 확대하여 산림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목재산업 육성 등에 93억 원, 국유림 목재생산에 27억 원, 지자체 목재 이용, 나무은행 지원에 2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인 자금난 해소 및 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임업인 육성 등 6종에 대해 산림사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였으며 전문임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림경영지도원 지원에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임업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술이전을 통한 임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지원에 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임산물 생산·유통 효율화를 위한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에 184억 원,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41억 원을,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 35억 원, 임산물 유통기반 육성 지원에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넷째,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생태계 조성 분야에 금년도보다 10.6% 증액한 61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 명 고용과 단가 인상을 위해 386억 원을 편성하였고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운영에 31억 원, 산불소화시설, 무선통신 및 개인진화장비 지원 등에 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헬기 운영과 헬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품 구입 및 외주정비 등 헬기 정비에 261억 원, 산림헬기 1대 도입을 위해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사방댐 조성사업에 1741억 원, 계류보전사업에 869억 원, 호우·태풍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산림재해대책비를 300억 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현장관리 기능 및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을 위해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및 일반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한 관련 예산 9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안정화를 위해 백두대간·DMZ 등 산림훼손지 복원에 109억 원을, 산림보호구역 관리에 41억 원을, 산림생물자원관리에 58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생물자원 보전 및 이용기반 마련을 위한 국립수목원 확충을 위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운영에 409억 원,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에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째, 해외산림자원 개발과 녹색 R&D 투자 확충 분야는 금년도보다 12.2% 증가한 1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산림협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확대·협력사업에 77억 원, 황사방지 및 개도국 기술지원 등에 32억 원,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산림 개발에 33억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 R&D 투자 확충에 8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끝으로 산림행정 성과관리 분야는 금년도보다 3.1% 증액된 17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기반구축에 64억 원을, 산림행정시스템 고도화, 시스템 운영·유지 등 지속 추진을 위해 179억 원을, 산림행정 성과 관리 및 산림인력 양성 등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신원섭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경찰은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도 해양경찰청 총지출 규모는 1조 2240억 원으로 올해보다 11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인명구조 및 구조 영역 확대를 위해 특수구조장비를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구조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VTS, 어선 자동위치발신장치를 확대하고 해양안전통신센터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정 및 전문 방제장비를 보강하고 불법조업 외국어선 검거 등 해양주권 수호에 필요한 재원을 차질 없이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은 해양안전정책 전반에 반영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선진 해양안전 책임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세출 예산안 규모, 주요 사업별 예산안 내역, 세입예산안 순입니다.

1쪽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 방향에 근거하여 재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해양재난안전 관련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은 현장 중심의 수색구조 및 해양사고 예방 강화, 해양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망 조기구축,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방제역량 제고 등입니다.

2쪽입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1조 2240억 원으로 인건비 5820억 원, 기본경비 401억 원, 주요 사업비 6019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수색구조 및 해양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3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수색구조체계를 확립하고자 특수구조장비 보강, 잠수지원정 1척 도입, 구조훈련 강화 등을 위해 3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해 연안구조정, 수상오토바이, 구조대 보트 등 연안구조장비 도입에 81억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해상교통관제에 필요한 연안 VTS 확대 운영에 69억 원, 어선 안전관리를 위한 V-Pass 시스템 조기구축에 159억 원, 파·출장소 운영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지원에 40억 원, 해양긴급신고 122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둘째,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27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함정 건조는 선박펀드 상환금과 대형함정 등 9척분 계속사업비로 1080억 원, 노후함정 대체 건조 및 무장보강을 위해 14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수 인명구조를 위한 다목적 대형헬기 도입 2년차에 144억 원, 신속한 조난신고 처리를 위한 위성통신망 구축 20억 원, 실시간 현장 지휘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14억 원, 수상레저 면허관리 및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해양환경보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류방제정 건조와 HNS방제정 건조에 34억 원, 방제장비 자재 확충 및 전문성 향상에 62억 원, 위험·유해물질 사고 대응장비 보강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효율적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16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정 운용을 위한 유류 구입에 1016억 원, 함정 및 연안구조장비 정비유지에 106억 원, 정비창 정비 운영에 189억 원, 함정 유지관리 비품·소모품 지원에 52억 원, 항공기 정비·유지를 위해 2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끝으로 내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 총 규모는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 증가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문강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총 지출규모는 2014년 대비 3.4% 증가한 14조 940억 원으로 예산 및 기금의 일반지출 규모는 8조 6408억 원과 5조 4523억 원으로 2014년 대비 각각 3.4%와 3.2%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농정분야의 재정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의 절대적인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식품부 재정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아울러 농식품부 재정 증가율도 정부 전체의 증가율보다 항상 하회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체결한 각종 FTA로 인한 예상 피해액이 막대한 수준이고 최근 정부의 쌀 관세화 추진으로 우리 쌀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며 중국과의 FTA까지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농정현실을 보면 급속한 고령화와 농어촌인구 감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노후화,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확대, 대규모 자연재해 및 농어촌 복지 수요 증대 등으로 막대한 규모의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수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 비중을 줄이고 있는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1. 과다한 허수예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농식품부 재정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의 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쌀 변동직불금이나 살처분 보상금 등 4개 사업과 농어촌특별세 재정사업에서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집행하기 어렵거나 집행요건이 불확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허수예산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농식품부 2015년 예

산안의 경우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쌀 변동직불금 3154억 원은 실제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야 집행되는 예산이므로 매년 10월의 쌀 가격이 수확기 평균가격과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는데 2014년도 10월 현재 쌀 가격이 17만 1867원 수준이므로 2015년에 반영된 변동직불금 예산은 상당 부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살처분 보상금 1500억 원과 재해대책비 2176억 원은 모두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살처분 보상금은 농식품부가 당초 요구했던 600억 원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재해대책비는 올해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2015년 예산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특별세의 세수부족 문제 등으로 정부에 따르면 올해 역시 연말까지 약 1조 원 수준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5년의 경제전망치 등을 감안하면 4조 241억 원의 세입 편성액은 과다하다고 보이고 실제 세입이 올해와 유사하다면 대략 8000억 원 세수부족이 예상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5년의 경우에도 상당한 규모의 허수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농특세의 실제 세입이 편성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허수예산은 해당예산에서 삭감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농식품부의 다른 사업으로 조정하고 농특세의 세수부족 문제는 농식품부 재정축소로 귀결되므로 세원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한·영연방 FTA 대응 예산의 실효성 제고문 제입니다.

호주·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와의 FTA가 최근 타결되어 내년 중에 발효될 예정이며 이들 국가와의 FTA로 인하여 향후 2.1조 원 규모의 국내 농·축산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철저한 보완대책 마련 및 실효성 있는 대책 예산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한·영연방 FTA 대책예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예산의 규모 측면에서 정부는 한·영연방 FTA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1.4조 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올해의 기존 사업 규모 1.5조 원에 비해서도 감소한 것이고 이러한 예산규모도 순증규모가 아닌 기존 사업예산을 합산하여 도출하는 등 대책예산의 규모가 실제보다 과다 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예산 배분 측면에서 품목별 피해규모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한·육우나 식량작물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예상되는 피해규모 대비 예산 증액 규모가 과소하다는 문제가 있고 셋째, 예산의 실효성 측면에서 내년도 한·영연방 FTA 대응예산 중 65%가 용자지출로 구성되어 있어 소득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FTA 대책예산 규모의 적정성, 예상 피해액 대비 예산 반영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직접 지불 예산의 적정성 검토 부분입니다.

2015년도 직접 지불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2014년 대비 26.9% 증가한 1조 639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의 1ha당 10만 원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과 쌀 가격 하락에 대비한 변동직불금의 대폭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직불금 예산안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49.3%에 이르러 쌀 중심의 재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쌀 수입이 농가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0%에서 2013년 20%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채소·특용·과수의 비중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말농업직불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6.3%가 감소하여 직불금이 다양한 농가소득원 창출 기여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말농업직불제에서 받고정직불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으나 2015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26개 품목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편성되어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불금 재원배분의 다양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 편중 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받고정직불제로

의 전환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한중 FTA 타결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쌀고정직불금의 단가 인상에 비례한 말직불금 및 이모작 직불금의 단가 인상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 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출예산 총계는 금년 대비 4.7% 증가한 6조 1000억 원이며 세출예산 총계에서 정부 내부거래와 여유자금운용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예산규모인 총지출 기준으로는 금년 대비 5.0% 증가한 4조 6000억 원입니다.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인물 2쪽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 대책과 관련하여 2015년 예산안에 10억 원이 편성된 운항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운항관리자의 독립성과 직무 강화 추진으로 정원 증원 가능성이 높고 여객수송실적은 줄어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운항관리비용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선대구조 개선자금 지원 사업은 노후선의 취약성이 확인된 카페리·차도선 중 선령 22년 이상 선박이 13척이나 되고 정부가 선박신조 지원 확대를 통한 노후여객선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어 예산편성 방향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2013년 46%, 2014년 9월 말까지 24.7%로 집행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해운경기 불황과 해운업체의 열악한 재정 등으로 선박신조를 유인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대출조건 완화 등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2015년 예산안에 53억 원이 편성된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은 해사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하게 될 예정이나 해사안전감독관의 정원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해사안전법의 하위법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는 상황으로 예산액과 그 산출근거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사안전감독관 정원과 해사안전법의 하위법령이 조속히 확정되어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경상이전수입은 여수엑스포 잔여재산 매각대금 769억 원을 포함하여 852억 60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수엑스포 잔여재산 매각은 이미 세 차례 무산되어 2014년 세입에 편성된 903억 원의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현재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의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 수행 중에 있고 해양수산부는 매각에서 장기임대 등 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매각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동 세입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인물 4쪽 되겠습니다.

2015년 예산안에 104억 3000여만 원이 편성된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 수거사업은 해상부유쓰레기 수거 등을 위해 전국 주요 무역항에 19척의 청항선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인데 청항선의 배치기준이 미비하여 일부 항만의 경우 청항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상 악화 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등으로 청항작업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청항선의 이동거리·톤수·관할해역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청항선 배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근해 노후어선에 대한 감척 사업과 대형 선망 위주의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 감척 사업과 현대화 사업 간의 정책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소규모 어선에 대해서도 현대화 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인 어장정화처리선 건조 지원사업은 어장정화처리선 1척 건조 비용을 민간에 용자하려는 내용인데 지난 5

년 동안 어장정화처리선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고 건조된 어장정화처리선이 1척도 없다는 점에서 어업인들의 수요에 대한 조사 분석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항기반시설 조성 예산은 안전시설 확보 차원에서 2014년 대비 399억여 원이 증가된 2077억 60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본 사업의 2014년도 9월 말 실행행률은 국가어항관리 45.4%, 가거도항 복구 6.9% 등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항사업은 낙후지역, 도서항만 등 소규모 항만에 대한 수역시설, 외곽시설, 접안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인데 그 집행실적 또한 2012년 63.3%, 2013년 58.1%, 2014년 9월 말 기준 35.7%로 부진한 실정이므로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양어업관리회사 지원사업은 원양회사의 담보력 부족으로 2008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230억 원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음에도 뚜렷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과 같은 예산 불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실효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계는 금년 대비 9.9% 증가한 1조 2240억 원입니다.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연안VTS 구축사업의 경우 VTS센터 근무 인력이 센터당 16명~19명으로 국제항로표지협회에서 정한 기준 28명에 비해 부족한 실정인바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이 필요하고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계사 교육 예산을 증액하며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근무자 지원비를 충실히 지급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개발사업의 경우 2014년 예산 2억 원 중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34%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집행실적을 제고하려는 노력과 함께 재정관리 활동사업과 해양치안 연구활동사업에서 실시하는 연구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이어서 농촌진흥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요약본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사업입니다. 3쪽입니다.

동 사업은 가축전염성질병에 취약한 현 시험장을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것으로서 2010년도에 3개 가축유전자원 관리기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업계획에 따라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년도 예산 이월액을 감안하여 동 사업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작물시험연구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요 발작물 자급률 현황을 보면 콩은 3.3%, 들깨는 13.9% 감소되었고 참깨와 땅콩 등은 답보 상태에 있어 동 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아 보이므로 농촌 현장이 필요로 하는 품종개발과 고령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재배기술 보급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신품종지역적응연구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원예작물 분야의 로열티 지급 추정액은 총 1375억 7000만 원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의 로열티 절감 추정액은 동 기간 예산액과 비교해 볼 때 약 7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국산 품종의 보급률이 저조한 것이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므로 품종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개발된 품종의 보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산림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산림공간정보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맞춤형 조림지도의 경우 현 2만 5000분의 1 축적 지도로는 토양 및 적합 수종 등

의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어려워 이를 5000분의 1 축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2013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본 지도가 산림을 보다 과학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산림바이오매스는 에너지용으로 사용되는 목재를 통칭하는 것으로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목재문화 활성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등 11개 사업은 동 사업과 연관성이 적어 보이므로 이들 사업은 별도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안전 관리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우 2006년에 처음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노후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나 국립자연휴양림 내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대책과 함께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첫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우선 31일자 농민신문을 보면 가락시장을 포함해서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의 불법 또 편법적인 장외거래가 지금 성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그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심하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했지만 수리시설 유지 관리 관련해서 예산편성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쌀 재배농가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 중에 수리시설 유지 관리는 기본적인 국가사무로 지금 여러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신정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보면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1590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자체 충당 내역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체 충당한다는 것이 농어촌공사가 돈을 벌어서 자체 충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지금 자산 매각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신정훈 위원**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승계자산이라고 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수세와 감보재산이 모아진 것들이 개발되는 지역에서 매각돼서 수익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나치게…… 매년 정부 예산에서 보면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의 거의 50% 이상을 자산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각별히 좀……

이 유지관리 예산 자체를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상향조정해 가지고 부담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위원님, 이미 아시겠습니까마는 지금 그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공사가 나머지를 자체 충당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까마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이 있지만 이미 3개 기관 통합 과정에서 정부의 약속도 있었고 또 자산 매각대금에 계속 의존해서 유지관리 예산을 세우다 보면 결국 현장 농업인들에게 제공돼야 될 예산이 소극적으로 세워지고 또 축소되고 이런 현상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지금 노후화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리시설 유지 관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제로 필요한 행정서비스, 유지관리

예산의 한 절반 정도도 안 세워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지금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신정훈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유지관리가, 쌀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행정 지원 비용이 지금 쌀 수입이 개방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럴 때라도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지원된다면 우리 현장의 농민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 올해도 거의 한 1500억 가까이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대폭 증액해 가지고 기존의 자산 매각대금은 자산 매각대금의 성격에 맞게 환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정부의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저희들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국가 재정 형편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되니까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장관께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안기금, 국감 때도 매번 지적되는 내용인데 국내 농산물의 비축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고 수입 농산물 비축사업은 수익성 때문에 그런지 대단히 많은 예산이 지금 배정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수입하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까마는 지난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적어도 물가와 관련해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품목들, 콩이나 참깨처럼 국내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최소한의 도입은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수입 비축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작년도의 수입 비축 농산물 현황을 보면 여전히 과일 분야도 상당히 많았고요 또 수입 비축된 물량이 시중에 풀리면서 국내 시장가격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반면에 농안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들이 과잉돼 가지고 시장가격이 폭락할 때나 하락할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수매 비축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지금 현재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저는 수입 비축사업의 예산은 줄이고 국내산 농산물의 비축을 위한 예산은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밥쌀용 수입 양곡대금 700억 정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이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없다기보다도 그 사이에 우리가 몇 년 동안 밥쌀용, 2010년부터 밥쌀용 쌀을 30% 썼습니다.

○**신정훈 위원** 내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제도가 바뀐 것은……

○**신정훈 위원** 관세화에 의해서 용도를 지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맞습니다.

○**신정훈 위원** 여기에 따른 700억 예산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것을 설정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밥쌀용 쌀을 수입 공급하면서 밥쌀용을 구입하고자 하는 일부 수요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이런 것을 운영을…… 갑작스러운 변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정훈 위원** 일부러 목적 있게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정훈 위원** 이면 합의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지는 않고요.

○**신정훈 위원** 그러면 사실상 용도가 불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불필요하다기보다는 현재 밥쌀용 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국내 수요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WTO의 규정상 국내 시장수요를……

○**신정훈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국내 시장수요를 감안해서 쌀 TRQ를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부 가공용으로 갑자기 바꾼다든지 이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지난해에 얼마 세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난해에도 같은 양을……

○**신정훈 위원** 그러면 제도가 바뀌었으면 뭔가 정부가 의지를 보이면서, 농민들하고 약속했던 그런 사항들을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올해도 계속 세우겠다 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조금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신정훈 위원** 저는 그 예산 자체가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비 예산 자체를 올해 전혀 쓰지 않았는데요. 올해 세워진 예산 900억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이유, 이것 이야기 좀 간단히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금년에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대형 재해·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피해가 있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집행을 되지 않았습니다.

○**신정훈 위원** 농어업 재해대책비 예산 자체가 해년마다 줄어 들고 있고, 세워진 예산조차도 발생한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단가도 현실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미미한 지원이다 보니까 수요자도 그렇고 정부 정책당국자도 그렇고 재해대책 예산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려면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일부 제도를 개선해서 조금 현실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대로 실질적인……

○**신정훈 위원** 형식적으로 예산만 세우고 농업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못 되는 이런 예산과

제도에 대한 개선 그리고 현실화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제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이인제 위원** 금년에 우리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위해서 40억 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집행했는데 오히려 쌀 소비가 1% 이상 감소했다고 그러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이인제 위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쌀이 비만의 원인이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국민들 인식 속에. 그다음에 수입쌀하고 불법 혼합 판매도 하고 이래서 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저하돼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캠페인을 보면 CBS 라디오방송에 나온 것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밥에는 피탄산이라는 천연항산화제가 들어 있어 아이들의 면역력을 키워 줘요. 칼슘, 마그네슘 등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해요’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만 해 가지고는 쌀 소비촉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쌀에 대한 신뢰, 안전 그리고 우리 쌀에 건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의 인식을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꾸어 줘야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쌀눈이 있는 쌀, 쌀눈에 있는 비타민 등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의 분해를 촉진해서 오히려 비만을 해소하고 면역력을 높여 준다고 그러는데 뭔가 국민들 인식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서 캠페인을 해 가지고 쌀 소비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쌀눈이 있는 쌀을 먹기 위해서는 나락으로 유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소규모의 도정기를 가지고 집에서 그때그때 도정해서 먹으면, 벼는 수입이 안 되니까 국내 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영양소라든지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가치 이런 것을 국민들이 인

식하고 쌀 소비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캠페인 방식도 바꾸고 예산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의 쌀산업이 농가 소득이라든지 국민 건강에 참 중요한데 지속되도록 하려면 소비를 촉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호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모든 것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쌀산업을 개방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또 국민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일석이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꾸 관성적으로 그전에 하던 효과도 없는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이인제 위원** 그다음에 또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인삼재배용 지주목 말이에요.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보내 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래서 철제지주는 지주목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보낸 모양인데, 원래 국세청은 농림부 유권해석을 그대로 따릅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금 국세청에서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 때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로 기재부하고 저희들 실무자 간에 두 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인제 위원** 기재부에 세제실 있지 않습니까. 세제에 관한 정책 담당은 국세청이 안 하고 기재부가 하니까 거기하고 삼자 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주목의 본질은 지주이지요. 그때는 철재로 지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지주목이라고 했지, 그 뒤에 더 경제적이고 농민들을 위해서 철재로 된 지주를 하게 됐으니까 그때도 철재를 썼으면 지주자재라고 했겠지 지주목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엉터리 해석을 해 가지고 농민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바짝 노력해서 가지고 농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서 제일 관심 중에 하나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착수 지구에 22개 지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아주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굉장히 시급한 지역입니다. 논산 부적면의 부인·아호지구가 배수개선사업의 신규 착수 지구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이인제 위원** 내수면연구소 이전사업 이것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10월 달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필요성……

나왔습니다.

○**이인제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인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실시설계비가 이번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됐는가 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좀 늦어 가지고 지난번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17억 원 요구는 했습니다.

○**이인제 위원** 국회에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실시설계비 17억 원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또 이 사업은 크게 보면 기존 것 처분하면 재정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재정당국에서 보면 더 플러스가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용역 결과처럼 타당성 있는 사업이니까요. 그동안 계획보다 또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니다.

○**이인제 위원** 그다음에 어선 감척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아직도 감척사업은 해야 됩니다.

○**이인제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계속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 강준석** 수산실장입니다.

앞으로 15% 정도 더 추가로 해야 합니다.

○**이인제 위원** 그러니까 85% 정도는 됐습니까?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 강준석** 예.

○**이인제 위원** 이것하고 병행해 가지고, 아까 검토보고에도 다 나왔는데 현대화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자꾸 FTA는 계속 확대되고 우리 어업인들 굉장히 생존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위해서 어선 현대화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되는데요.

일본은 이미 2008년부터 어업개혁추진 집중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도 유럽수산물기금 사업을 통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미지근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정책금융 금리가 3%이고 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금리가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이인제 위원** 금년에도 금리 3%이니까 시중금리하고 차이를 보전해 주는 예산 10억 원 정도만 반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고요. 우리 어업의 경쟁력은 자꾸 낙후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공감합니다.

○**이인제 위원** 어선 감척사업도 물론 계속 끝까지 해야 되겠지만 현대화사업에 오히려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심도 있게 예결위에서 토론을 하겠습니까마는 우선 1%로 금리를 낮추고 차액 보전, 이차보전이라고 전문용어를 쓰고 있네요. 이차보전, 이차차액 보전이라는 뜻인가 보지요? 이차보전 예산을 한 20억 원, 10억 원 더 반영해 가지고 올해는 현대화사업 집행이 더 확대되도록 노

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지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이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성 위원 우선 농림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구를 얘기하려면 해수부장관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특수한 상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새만금을 막으면서 그때 새만금 허가조건이 새만금 안에 있는 11개 어항을 정비해서 새만금 밖에 어항을 건설하기로 약속하고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새만금 내측에 있는 11개 항을 폐쇄하고 대체로 4개소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그중에서도 3개소, 그러니까 신시도·가력도·대항 이렇게 3개를 만들기로 했는데 대항항은 아예 안 만들어졌고 신시항은 만들어졌고 가력항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새만금 안의 배들이 거의 방조제가 다 돼서 나가야 되는데 현재의 가력항으로는 어렵이 없는 거예요. 거기 선착장에 이동 희망 척수가 약 300척입니다. 그러니까 대항항을 안 만든 거지요. 안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항구를 늘리는 것, 확장이 필요한 겁니다, 장관님.

그런데 농어촌 어항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해수부 것이 아니고 농림부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을 거의 다 막아서 배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장 작업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400억 정도 들어가는 상당히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빨리 시급히 시작해서 배로 확장을 해 가는 작업을 해야, 그래야지 새만금 완공이 된 뒤에 어선들이 밖에 나가서 정박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도 가력도 때문에 배들이 서로 모자라 가지고 대지를 못해 갖고 난리가 나 있거든요. 이 사항 말씀 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방조제 안에는 아직도 다수의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선착장 수요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인데요. 전라북도 등과 어선의 현황이라든지 또 정박 수요 이

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선착장의 확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런데 장관님, 항구를 건설하는데 1년에 건설된다면 제가 그렇지 않지요. 그게 아니고 항구를 건설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거니까 원래 약속대로, 그럼 약속대로 해야 되는데 대응을 안 했잖아요. 안 한 거예요.

신시·가력은 했지만 대항항 건설을 안 해 버린 겁니다.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대항항 거기는 항구 입지로서 불가능한 거예요. 가력항은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방조제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 사업을 시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막은 뒤에 배 나가 갖고는 그때는 늦는다는 얘기에요. 이게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전북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되고……

○최규성 위원 예, 상의를 하셔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금 실태라든지 실제로 항구를 얼마나…… 또 만들어 놓으면 많은 돈이 드는데 이용이 돼야 될 건데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거기 김제 배를 못 댁니다. 부안 사람들이 내 땅이니 배 못 대게 해 가지고 싸움이 벌어져 있는, 지금도 그런데 다 막고 나면 새만금 배 나가면 댔 데가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하여튼 전북도하고 상의해서 확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가력항 확장하는 부분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제가 국감 때 비용항 말씀드렸지요, 태풍 불었을 때 방파제가 잘못돼 가지고……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런데 현재 정부안은 아직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최규성 위원 한 15억 정도 이렇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비가 한 20억 원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성 위원 20억 반영을 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농림부장관님도…… 항구 건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 3개 약속했으면 3개를 하도록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3개를 못하고 하나를 아예 할 수 없으면 기존에 있는 항구를 늘려서 그것을 수용을 해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긋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안에 대항항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부안의 대항항 거기에 지형상 도저히 못 만드는 상황이라 못 만든 거예요. 못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가력항 만들 수 있는 데를 방조제 옆이니까 확장할 수 있어요. 확장해서 배들이 여유 있게 가고 안전하게 해야지 거기 먼 데 태풍 불면 군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실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또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필요시에……

○최규성 위원 도에서 상의를 하시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도에서 강력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신원섭 예.

○최규성 위원 제가 국감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나무를 많이 수입해 오고 그러잖아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최규성 위원 그래서 새만금 간척지에 나무 대체림으로 크나프 얘기를 했었잖아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최규성 위원 식물도 제가 보여드렸고 그랬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산림청장 신원섭 예.

○최규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농림부장관께서도 농림부에서 나온 땅들 많이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최규성 위원 이게 1년생입니다, 1년생. 1년생이니까 어떻게 보면 식물인데, 그러나 용도를 보면 나무예요. 이걸로 나무를 전부 대체할 수 있고 원목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니

까 새만금 간척지에 산림조합들을 통해서, 땅 임대해 주는 건 농림부에서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산림조합들을 통해서, 산림청에서 직접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산림조합한테 그 땅들 나눠 주고 심어 보라고 하면 이게 돈이 되는 거니까 산림조합들이 합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예.

○최규성 위원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의 동력은 산림청에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땅 빌려 주는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해 가지고 만약에 성공을 하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목재산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최규성 위원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우리한테 나무 안 팝니다. 원목 다 가공한 뒤에 그렇게 해서 팔지 나무를 팔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목재산업이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한번 전향적으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다음에 새만금 수목원 조성하는 문제, 예타 문제도 산림청에서 신경 써 주시고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종자종합처리센터에 관련된 부분도 농림부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최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장관님과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쪽 각 부처의 보고하는 서류를 보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작성하신 공무원들도 힘들었습니다마는 저는 농민을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하고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정부나 국회가 농민들에게 거짓말만 하지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봐 보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계수 조정하더라도 답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면 답이 있다 봅니다.

먼저 공무원님들은 농어민들을 존중하는 자세가 있으면 좋겠다, 솔직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말은 예산편성·입법, 국회가 한하는데 국회도 좀 배려하고 존중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반영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이 문서로 봐서는 읽을 수 없다. 심지어 전문위원이 오늘 발표한 내용도 아마 작성하신 분들은 무시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위원장님과 홍문표, 모처럼 예결위원장 되셨는데 이것 못 해 준다면 국회의원하고 공무원들 다 내놔야 되지 않느냐. 불용액 5년간 한 3조 원 되면 하여튼 이 분야에서 6000억의 불용액이 났어요. 그 말씀은 뭐냐? 농민들의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6000억 이것을 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분야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날이 새더라도 제가 예산편성 따지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왜인가 하면 증액시켜 주셔야 될 것은 정부에서 한·칠레 FTA 할 때 1조 2000억 투자한다 해 놓고 어디 투자했어요?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연방 축산 10조 이상 한다 해 놓고 여기 보면 정부에서 얼마나 거짓말하는가 보세요.

축산농가 사료구입 부담 완화, 지원 강화, 작년도 7577억에서 내년도 5855억으로 줄어요. 무슨 놈의 축산농가 사료구입 강화입니까, 이게?

제가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은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오죽해서 말은 지원 강화라 해 놓고 작년보다 줄여서 예산편성 했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변동직불금, 살처분 보상금 5000억 되는 것 다 예비비 내지 추경으로 편성하고 이것 잘라 가지고 정말로 축산농가 오는 그림에 이게 빠진 것이……

국회의원 입장을 봐 달라는 것은 축산을 살리려고 그러면 정보화해서 두수의 정보를 주고 총량화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쪽했어요. 10월도 없어요, 예산. 그것 없이 앞으로 축산농가 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정부에서 새로운 정말로 영연방 축산농가에서 해야 될 것 뭐냐, 9개 항을 하려고 그

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말장난하지 마시고 축산농가 시위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9개 항 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 가지고 국회로 줘요. 국회 예산편성 못 하면 국회의원 배지 떼지 뭐하려고 앉아 있어요. 왜 정부에서 편성 안 해요, 그것을?

그다음에 ‘쌀 관세화, 쌀산업 지속가능 제고’ 해 놓고는 내용 봐 보면 이모작 직불금 작년도 906억, 이모작 올려야 되잖아요. 내년도 603억, 아니 수입 관둬 소리 하지 말거나 쌀 관세화를 겁을 내지 말거나, 그러면 전부 다…… 지난번 쌀 관세화, 저도 여당인데 찬성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쌀 관세화 해 놓고 뭘 올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모작 직불금 906억이면 쌀 관세 해서 내년도에 난리치고 민심을 저거하려고 그러면 올려 줘야지 300억을 깎아 놓고는 무슨 제고라고 써놔요, 이것을.

그다음에 농지 매매사업 886억에서 754억, 농지 매매 대규모하고 뭐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면 올려 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농산품 유통구조 개선 해 놓고 이것도 떨어졌어요. 수출해야지 산다 해 놓고 수출하는 것 뭐하려고 하면 종자연구, 종자산업 육성 609억에서 487억으로 줄었어요. 무슨 놈의 종자산업 육성이 강화됩니까, 이래 가지고?

제가 보고한 것 몇 개만 뽑아서 이래요.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R&D 연구, 제가 질의할 때 몇점몇%인가, 농식품부에서 5%래. 5% 해서 줬어요. 5%면 적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연연하는 것, 지난번에도……

23쪽 보시면 농진청 원예시험·인삼특작·온난 대응·시설원예·사과 연구·배 연구·감귤 연구……

포도가 몇천억 해 가지고 전국의 포도 농가들이 난리인데 포도 연구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연구같이? 옛날에, 10년 전에 안 했으니까, 그때 가만히 있었는데 김종태는 가만 안 있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포도 연구도 사과 배 그만큼 넣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20억 적은데 제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지요. 감 연구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리고 지금 없는 것들 봐 보면 채소류라든지 밭작물, 정말 FTA 해 가지고 겁나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님은 뭐가 양허 대상인지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모르고 있다가 예산 편성 해 놓고 턱 내는데 연말에 FTA 되면 다 농사지으면 망하지요. 망하지 않으려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품목은 뭔지 모르지만 중국하고 FTA 됐을 때 발작물에 대한 대비하는 것, 뒤에 대한 대비하는 것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보상해 주거나 아니면 육성해 주는 것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것 작년 상황 같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금년 예산편성 다르잖아요. 쌀 관세화하고 영연방하고 중국 FTA를 앞두고 농가 대비하겠다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어디 들어갔어요? 농식품부에서, 정부에서 낮춰 주니까 증액 못 시키지요.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증액시켜 달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농식품 예산 5000억, 1조 넣어 달라고 하면 안 넣어 줄 겁니다. 저는 강력하게 여기 불용액으로 금년에 뺄하게 나오는 5000억~6000억 이것만큼을 내년도에 올 농민 피해에 보전할 수 있도록 정말 농식품부에서 하고 싶은 것,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싶은 것 전부 해서…… 기재부 칸막이 딱 있잖아요. 기재부 칸막이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구에 비해서, 투자해도 소득이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의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투자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럴 때 같이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농가 저것 안 합니까? 총리님도 저한테 전부 ‘예’ 긍정적으로 답달아 냈어요. 총리님이 거짓말하면 총리님이 책임져야지요.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보니까 워낙…… 제가 국민들에게 가서, 제 지역에 가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예산편성 해 놓고 고향에 와 가지고 농수산 했네, FTA를 했네, 쌀 관세화를 했네, 정부 정책 어떻게 제가…… 저도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FTA 하면 찬성하라 그럴 겁니다. 이래 놓고 무슨 찬성을 합니까?

지금 축산인들 떠메고 있는 것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에. 농촌 리모델링한다 그러더니 거창하게 해 놓고 하나도 없잖아요. 농촌 리모델링하는 예산 넣어야지요.

그다음에 도시는 팬찮은데 농촌에, 부부가 이야기하는데 절규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좀 아십시오. 둘이 농사짓는데 애 낳으면 몇 년 키웁니

까? 3년, 3년, 6년, 엄마는 일 못 합니다. 농촌에 아이돌보미 먼 단위에 하나만 해 주면 아이 갖다 놓고 내 노동력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갖다 놓고 열 사람의 애를 보면 아홉 사람의 노동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도시에 있는 아이돌보미는 엄마들이…… 대한민국의 여성들 30% 취업했지 않습니까? 70%는 편하기 위해서 아이 맡겨요. 농촌에서는 일손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 맡기는, 그것은 해 줘야 될 아니겠어요? 그것도 예산 줄었어요.

정말로 농촌 사정이 어떤가 장관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도 말고 불용액 나올 것, 오류천억만 추가소요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이것은 쪽지예산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심의해 가지고 농해수위에서 저쪽에 예결위에 넣어서…… 홍문표 위원이 그것도 해결 못 하면, 평상시에 제가 농해수위에 있으면서 큰소리치는 것 봤거든요. 그것도 반영 못 해 주면 농해수위 나가야지요, 우리 동료 위원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특단의, 예결 할 때까지…… 제가 어떻게 증액시킬 능력이 없어요. 제가 만들 능력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6000억 정도 해 가지고 정부하고 논의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두 장관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 형편 가운데서도 올해 이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14조 940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영연방 FTA와 관련해서는 한·호주, 한·캐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인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축산 분야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좀 부족해서 9개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쌀 관세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

력하겠습니다.

한중 FTA는 아직 타결이 되지는 않았습니  
마는 일단 타결이 되면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  
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만들 건데 그 이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나름  
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위  
원님께서도 또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문제를  
풀어 가는 데……

○**김종태 위원** 제가 30초만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우남** 시간 충분히 쓰지 않았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  
시오.

○**이이재 위원** 장관님, 제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는 워낙 거칠게 하더라  
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이이재 위원** 일단 독도입도지원센터 사업 취  
소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작년 말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국회  
의결은 국민의 명령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런데 정부가 국회 의결을 일방  
적으로 무시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  
부에서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11월 4일까지 입찰이 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달청에 이미 의뢰까지 됐던 것이  
철회된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이재 위원** 철회 사유를 보면 ‘안전 관리, 환  
경, 문화재 경관 등에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 검  
토할 사항이 있어’ 이렇게 취소 사유를 밝혔는데  
이것은 정부 정책 결정의 논리적 자기모순입니  
다.

왜냐하면 애초에 추진할 때 입도객 안전 관리  
를 위해서, 기상 악화 등에 따른 일시 고립 발생  
시 피난시설 등 안전을 목적으로 계획이 됐던 겁  
니다. 그런데 취소 사유가 ‘안전 등’ 이게 말이  
 됩니까?

일본이 최근 들어서 정말 위안부의 존재, 역사  
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망언을 하고 있고 교과  
서 왜곡 등등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갈팡  
질팡 하니깐 엇그제 5일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  
을 자처해서 다케시마, 죽도 일본식 이름이지  
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

다. 다케시마 내 한국 측 사업은 일본 국가 차원  
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급에서 주장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취소된 걸로 안  
다, 즉각 일본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취소된 사유가 외교부 요청이라면서요?  
장관님, 철회된 배경에 대해서 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입도지원센터를 짓기  
로 결정한 경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  
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  
적으로 분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대한민  
국 정부는 영토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에 전혀 변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금년도 예산 반영에 따라서 독도입도지원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에 따르  
는, 그 뒤에 경사면이 바로 독도의 산 지역입니  
다. 거기에 따르는 안전 문제 또 일부 파일(pile)  
이 바다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해양 환경오염의 우  
려, 또 거기가 천연기념물로서 문화재입니다. 그  
래서 문화재 경관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이  
런 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이재 위원** 장관님, 그러면 재검토해서 어떻  
게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추진할 것입니다.

○**이이재 위원** 추진하면 그냥 하면 되지 일본은  
이게 자기들 외교적 성과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  
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스마트폰 기사를 보면서  
하는데 ‘우리가 설득했더니 한국이 물러선 것이  
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그것은 전혀 터무니없  
는 말입니다.

○**이이재 위원** 이런 빌미를 왜 줍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는……

○**이이재 위원** 외교부장관이 어떻게 철회를 주  
장했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 환경, 경관 재검토를 위해서 일단 유보……

○**이이재 위원** 외교부장관이 안전, 경관, 이걸  
담당하는 장관입니까? 솔직히 외교부장관이 불필  
요한 마찰을 피하자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국토  
와 주권에 관한 문제를 마찰이 있더라도 지킬 것  
은 지켜야지 이게 불필요한 마찰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저희들은 외교적으로  
영유권 분쟁은 없습니다.

○이이재 위원 도대체 대한민국 외교부는 누구를 위한 외교부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독도 영유권에 관한 분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전, 환경, 경관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이재 위원 장관님, 주무장관으로서 독도를,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관리해야 될 주무장관으로서 당당하게…… 이게 국무총리가 주재한 몇 차례 회의에서 다 결정됐던 일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이이재 위원 국가가, 국민이 뒷받침하는 사업입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외교부든 뭐든 당당하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당장 발주를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아까 말씀드린 문제를 검토한 뒤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진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울릉도, 독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 수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연간 한 20만 넘는 것으로……

○이이재 위원 혹시 제대로 아시는 간부들 계세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문해남 해양정책실장입니다.

2013년도 26만 방문을 했습니다.

○이이재 위원 30만……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문해남 26만 정도 왔습니다.

○이이재 위원 세월호 사건 후에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문해남 금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조금 줄었습니다.

○이이재 위원 거기 최단거리 항만이 우리 동해시에 있는 묵호항만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이재 위원 4500t급 가장 큰 여객선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해양경찰청 부두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해경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예.

○이이재 위원 안전이나 이용 편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중앙부두로 이전하는 사업을 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 투입해서 철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민자 여객터미널 짓겠다는 사업자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파제는 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이 점은 금년 내에 예산을 반드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리고 지난번 질의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정말 심각한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장기 침체 걱정이 큼니다.

이런 마당에 외자 유치, 중요한 활성화 대책의 한 분야인데 영종도에 지금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에서 추진하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투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이재 위원 드림아일랜드 사업, 이게 거의 2조 원 외자 유치되면서 약 1만 8000개 일자리 창출, 27조 원 경제적 파급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추가적으로 연쇄적인 한인상공인들의 투자 유치가 이어지게 하려면 첫 사업이 성공이 잘 되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이재 위원 여기에 투자협약 시에 정부가 약속한 기반시설, 이 설계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이것도 역시 내년에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꼭 내년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우리 한상들의 염원을 모아서 국내에 투자하는 최초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중물처럼 인프라 시설은 우리 정부에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이재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6차산업 정말 이 장관님의 브랜드 사업인데 고랭지채소 6차산업지구 육성계획을 장관님께서 직접 방문까지 하셔서 하고 있는

데 이 예산이 누락됐습니다. 이것도 꼭 되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앞으로 계속 죽해 나갈 거니까요 지금 그게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성과가 크다 이런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설사 그것이 누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다음 기회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이재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뒤로 미뤘습니다마는 이 장관님, 지금 해상관제센터가 국가안전처 관리로 넘어가는 데 대해서 지금 항만 운영자, 각종 선사들 등이 대단히 우려가 큼니다.

이 부분은 장관님 물론 노력하고 계신 것 압니다마는 위원장님, 이것은 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항만서비스의 국제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VTS, 해양항만관제센터 운영권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우남 위원장, 안효대 간사와 사회교대)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우리나라에 총 18개 VTS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는 연안VTS로 항만 운영하고는 관계없이 해상교통안전 위주의 관제를 하는 연안VTS 3개가 있고요. 그것은 해경이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개 VTS센터는, 무역항의 안전 관제와 함께 항만운영서비스를 관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VTS센터가 15개입니다.

그런데 전문요원들이 해야…… 그게 국내외 상선들, 주로 많이 드나드는 항만서비스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더라도 그런 서비스 기능의 본질에 맞는 운영이 돼야 된다는 점을 지금 정부조직법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런 항만서비스 지원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래서 국제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이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효대** 이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우 위원** 경기 이전의 유승우 위원입니다.

오전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농림부장관님, 한중 FTA 초민감품목에 대해서 농산물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 이와 관련한 예산이 아직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협상이 점차 마무리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첨단 제조업은 이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농가들은 이익보다는 피해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농축산식품부의 역할이 참 큼니다.

이것 언제쯤 타결될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난 7월 한중 양국 정상에 연말까지는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유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거기에 의거해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승우 위원** 핵심은 초민감품목군에 대해서 우리 핵심 농축산물이 얼마만큼 포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초민감품목군은 전체 품목의 10% 또 수입액의 15%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산품도 포함되지요, 농산품만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유승우 위원** 그런데 초민감품목군에 농축산물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농업 분야의 민감성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초민감품목 여기에 최대한 농산물을 많이 포함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입장으로는 우리 농업에서 가장 상징성이 높은 쌀 문제 같은 것 이것은 초민감품목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비중이 높은 한우 돼지 계란 벌꿀 그리고 복숭아 산수유 도라지 인삼 이것은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반드시 초민감품목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이 품목들이 꼭 들어가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불용액이 연간 1조 원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 전체의 평균 불용률은 2.9%인데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는 6.5%나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좀 높은 것으로……

○**유승우 위원** 이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6.5%나 되는데 최근 7년간의 통계를 보면 불용처리한 예산이 약 8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매년 1조 원 이상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매년 지나치게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했다가 불용처리를 하고 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의 경우는 내부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실……

○**유승우 위원**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정부 전체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체 재정의 증가율은 4.6% 수준인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그 증가율이 1% 수준에 그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은 계속 쌓이게 되고 이것이 악순환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부터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 또 지금 이미 이런 불용이 발생한 예산 같은 것들은 아까 김종태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그리고 장관님, 국회의원의 지적을 그냥 건성건성 듣는 것 같아요.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당초 한 얘기 그대로 갖고 있어요. 왜 이러는지 말입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제가 강조를 해 왔던 살처분과 관련된 예산,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병에 걸리지 않은 가축을 생매장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다. 그래서 올해 600억 예산을 내년에는 1500억으로 또 증액한 것에 대해서 이것 이렇게 증액해도 되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선택적 살처분의 방향을 농림부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잘한 것인데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준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주 선택적으로 살처분을 하도록, 예를 들면 살처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유승우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금년 살처분 예산이 600억인데 내년에 1500억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살처분비 1500억은 예비비에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책방향하고 맞지 않은데…… 확실한 것 있지 않습니까, 브루셀라나 결핵이나 이런 예산이 확실한 것은 괜찮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리 정해 놓고 말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미리 정해 놓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1500억,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이렇게 정해 놓고 말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뭐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유승우 위원** 아니, 일부 있는 게 뭐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조금 전에 허수예산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축산 분야의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유승우 위원** 장관님, 제가 예결소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 철저히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그래

서 이것 줄여서 다른 데 쓰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예비비 쓰세요. 그것이 정부의 의지…… 정책을 바꿨다면 이것은 계속 해 놓고, 그런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인사말에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반영하겠다 그러고는 전혀 반영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됩니까? 지금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있던 것이라서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심사 과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장관님, 이것은 확실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관세화 관련해서 혼합쌀 단속 예산 늘려야 한다, 이것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쌀 관세화 시작되면서 농민들 굉장히 불안하다, 농림부에서도 대책을 세웠어요. 발전대책을 갖고 네 가지나 세웠는데 아주 상당히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에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유승우 위원** 예산 없이 뭐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쌀산업 대책 예산 반영 내역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단속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이나 이것 말장난하는 겁니까?

장관님, 확실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위원님 지적을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유승우 위원** 그것 모르고 뻔했습니다, 일부러 뻔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 것은 아니구요.

○**유승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단속에 필요한 예산반영이 좀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유승우 위원** 아니, 미흡한 게 아니고 예산 자체가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소 얼마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금도 원산지 표시 관리라든지 사법경찰 수사활동 단가는 좀 있습니다마는……

○**유승우 위원** 아니,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보세요. 지금 국산농산물 262개 품목하고 외국 농산물도 일제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식당이라든가 가공업소가 60만 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못 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유승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대책은 하나도 안 세우고 그냥 문구만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 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걱정 때문에 장관님은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하여튼 외국 쌀과 차별적으로 유통되도록 그 식별법을 개발한다든지 단속을 하는 수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유승우 위원** 아니, 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하시고 못 하겠다면 딱 아주 지워 버리세요. 이것 불법유통 단속한다 해 놓고는 예산도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좀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위원님께서도 심사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우 위원** 여기 관련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 마커 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할 텐데 그런 예산 지원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이것은 확실히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은 꼭 지켜서 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고맙습니다.

○**유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효대**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위원장대리 안효대** 부정유통, 유승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예산에 다 누락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편성하셔서 반영을 하시고 예결위 때 노력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하여튼 관계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위원장대리 안효대**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단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심의과정에서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효대** 그리고 우리 상임위 예산소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서 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해 가지고 예결위에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예산소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효대**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주홍 위원** 농림장관께 질의를 하지만 해수부장관께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일이니까, 농촌·어촌 공통된 얘기입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것들은…… 고정직불금 단가 헥타르당 100이잖아요. 100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110으로 돼야 한다는 문제라든가 또 발농업에서도 40만 원인 것을 한 60만 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든가 또 사일리지 제조비 같은 것도 원래 국고 보조 60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30인데 그런 것들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향만공사 국고보조금 관계 이런 것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식품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황주홍 위원** 지금 농가소득하고 도시근로자 소득하고의 격차는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2012년에 100 대 57 그리고 2013년에 일단 지표상 약간 개선이 돼서 100 대 62. 물론 62 된 게 아마 우리 농정에서 기여한 몫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분리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대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내수침체 또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부정적 여파가 도시근로자에게 직격탄이 되는 거지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등등. 그래서 도시에는 좀 더 큰 영향을 미친 데 반해서 농어촌지역은 비교적 조금 덜 미쳤기 때문에 상대적 격차가 완화된 걸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래 농가소득이 도시소득보다 더 좋았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 적이 있었지요. 과거 70년대 말이라든지……

○**황주홍 위원** 쭉 그랬었지요. 그러다가 역전이 이루어진 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우리가 도시보다 더 격차가…… 부정적으로 하락된 게 언제입니까? 100 대 100으로 같이 본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꽤 오래됐습니다.

○**황주홍 위원** 이런 수치에 대한 통계 이해가 저는 하나의 비전을 구상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강화해야 한다 할까,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치르던 1988년에는 도시를 100으로 할 때 농가가 104.8이었습니니다. 그리고 1년 뒤 1989년에 비로소, 비로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100일 때 저희가 97.9가 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 97.2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계속 추락이 된 거예요. 그러다 아까 말씀처럼 2012년에는 57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 약간 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한 100 대 60인데 한 70 정도로 소득 수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몇 년 정도 걸린다든가 언제까지 하겠다든가 이런 구상이랄까 플랜이 농정에 혹시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구체적으로 도시·농촌의 소득 격차를 가지고 지표로 해서 70%까지 하겠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번 정부의 로드맵같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이것을 세우고 거기에서 소득을 위해서는 노력을 한다든지 해서……

○**황주홍 위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것은 수산도 마찬가지로인데 정책이 짧게는 주로 1년 단위로 끊어서 계획들이 세워지는 것 같고 좀 길게 봐도 호홉이 한 5년 단위로 정권에 맞춰서 되다 보니까 좀 긴 구상, 10년, 30년, 100년 구상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황주홍 위원** 해양수산부장관께서도 축구 좋아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좋아합니다.

○**황주홍 위원** 지금 FIFA 랭킹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어디가 앞서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한국이 앞서 있을 텐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일본이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거기까지는 잘 몰라서 그런데요.

○**황주홍 위원** 올림픽 치르고 일본 축구는 FIFA 랭킹이 십몇 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은 45위입니다. 우리나라는 56위입니다. 일본이 옛날에는 우리에게 상대가 안 됐던 것 기억하시지요? 일본은 그냥 우리의 밥이었어요, 70년대까지는. 80년대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언제부터 역전이 이루어지느냐? 일본에서 J리그를 출범시키면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때 일본은 동네북이었어요. 지금은 일본이 우리보다 FIFA 랭킹상 한 십여 위 앞서 있지만 실제 우리 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앞서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랄까 진단입니다.

J리그가 출범할 때 자기네들의 모토랄까 슬로건, 캐치워드가 뭐였는지 혹시 농림부장관 아시나요, 모르시지요? 해수부장관님도 모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잘 모릅니다.

(김우남 위원장, 유성엽 간사와 사회교대)

○**황주홍 위원** 놀라운 얘기입니다. 100년 구상을 내걸었어요. 오늘 인터넷에 한번 찍어 보시고요. J리그 출범할 때 자기들의 구호가 100년 구상이었습니다. 100년 뒤에, 91년인가에 출범했을 거예요. 1991년에 출범할 때 100년 뒤에는 세계 1위에, FIFA 랭킹 1위에 올라간다는 그 비전을 연도별로 갖고 있는 거예요.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30년 뒤 그리고 100년 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일본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의 농수산 행정은.

저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 대 60이라면 100 대 65는 어느 해에 도달하고 70은 어느 해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년 뒤

에, 우리가 1989년에 1위 자리를 뺏겼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랬다면 25년 정도 걸리는 셈이니까 25년 뒤에는 100 대 100으로 다시 회복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나? 1년 단위로 하는 짧은 호흡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국무위원들 특히 농수산 행정의 장관들을 처음에 임명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좀 길게 임기를 줘야 된다, 실·국장 같은 경우도 한 부서에서 오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농촌만 한번 보지요. 우리 농가 총소득에서 벼 농사의 수입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대체로 농가소득 중에서는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렇습니다. 20.6%입니다.

축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축산은 절반이 조금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지금 한 30% 됩니다. 한때 40까지 얘기를 했는데 농식품부 자료에 25인가 6인가 나와요. 그런데 대략 한 30 정도 됩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30이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30 정도 돼요.

그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니까? 채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 나머지가 채소, 특작……

○**황주홍 위원** 채소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가늠을 해 보세요, 장관으로서. 벼가 한 20이고 채소, 특작, 과수 했을 때 채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 것들을 다 합해 가지고 나머지……

○**황주홍 위원** 채소가 25%예요. 특용이 5%, 과수가 15%입니다. 대략 그렇게 해서 100이 구성됩니다.

저는 벼농사에 리스크가 집중돼 있다가 이렇게 분산되는 것은 비교적 좋은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된 좋은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비전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서 밭농업 예산 비중이 너무 낮은 거예요. 축산 비중도 차지하고 있는 실제 비중에 비해서 예산 비중이 훨씬 현저하게 상대적으로 반영이 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

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첫 번째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발농사 얘기를 한 것인데 발농사가 원래 고정직불 단가니 뭐니 해 가지고 이천몇백억을 요구했지요? 그런데 실제 반영이 3분의 1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시간이 벌써 다 돼 버렸는데 제 얘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거기에 맞는 재정 투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장기 비전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나? 저는 귀농·귀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금년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귀농·귀촌의 문제, 사실은 농촌 지역 농총각들의 결혼 문제도 개인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농가소득 증대 또 농가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해수부장관께도 말씀을 했지만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지원, 후계자 양성 그리고 직불제 유인, 끌어들이는 직불제도의 마련, 이런 것이 해수부 차원에서 또 농식품부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길게 내다보면서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농식품부는 거품 예산, 허수예산이 많아요. 지금 저희가 뽑아 보니까 그게 내년 예산에도 한 7000억에서 1조 4000억 됩니다. 무슨 변동직불제니 재해대책비니 농특금 이런 사업비 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품이 있어 가지고 농어업 예산이 매년 그래도 조금씩 증액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착시 현상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견어내 버리고 만약에 필요할 때는 다른 수단도 여럿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쓰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을 살리는 데 굉장히 필요한 마인드랄까 정책의지가 그런 방향으로 새롭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을 다 못 마쳤는데 이 정도면 제 취지는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두 분 장관께서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위원님 말씀처럼 100년을 내다보는 수산행정 또 해양행정 하는 것이…… 아주 옳은 지적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해양수산부의 멀리 내다보는 비전을

잘 수립하자 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선 지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허수예산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차제에 국회에서 심사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발산업의 경쟁력 강화, 우리가 지난 이삼십 년을 논의 기반정비를 하고 기계화를 하고 소득안정장치를 만들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밭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한중 FTA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FTA 대책의 일환으로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 이런 쪽으로 좀 더 저희들도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성엽**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해수부장관님, 오전에 존경하는 이이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독도 입도지원시설에 대해서 문화일보에서 단독으로 입수해서 내보도 내용 보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봤습니다.

**○이종배 위원** 여기에 보면 ‘국무총리실이 5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놓고 거짓 해명 의혹이 일고 있다’, ‘정부의 대일 저 자세·굴욕외교에 대한 비판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이종배 위원** 우선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하실 것이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계획된 입도지원시설의 포기나 백지화가 아니고 검토 후에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저희는 그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데 그 의지의 변화가 추후도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재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점검을 못 한 데 대한 제 불찰이 있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종배 위원 같은 보도 중에 올해 책정된 예산 30억 원을 전용하는 것을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어떤 시설에 전용할 것인지 또 내년 예산은 세우지 않도록 하라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확인을 했습니다. 꼭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이종배 위원 농식품부장관님, 오전에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한중 FTA 대비해서 선제적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꺼번에 쌀 개방화 또 한·캐나다, 호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섞여 가지고 돼 있는데 한중 FTA도 오늘 양국 통상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해서 14차 협상을 하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언론에 나온 데 보면 10일 타결 전망도 있다 이런 전망도 하고 그러던데 이것도 시급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협상이라든지 또는 농업인들 생활안정, 소득안정을 위해서라도 발농업직불제 확대가 필요하다 하는 문제, 그리고 농산물 원산지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 또 경영비 절감 지원을 위한 사업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인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필요 이런 의견들이 제기되는데 장관님은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 필요성을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농업 분야에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이 2800억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님도 마찬가지로 해수부 금리가 좀 높아서 인하 요구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자금에 대해서.

○이종배 위원 정책자금 인하도 329억 정도 더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있던데 그런 것들이 이번 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한중 FTA는 우리 농업이나 어업에 있어서 시련이기도 하지만 한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미 FTA 타결할 때 같이 국민적 갈등이나 또는 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본 위원 의견에 의견을 같이해서 노력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이 2015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하다 하는 지적이 우리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있던 것 농식품부장관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이종배 위원 친환경농업직불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하고 10년부터는 저농약 신규는 인정을 하지 않고 16년부터는 아예 저농약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과실류 같은 경우는 무농약이나 유기농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농약이 전체, 사과도 97.6% 배가 96% 단감 92.7% 포도도 83.3%가 저농약이거든요. 농축산부에서는 앞으로 2013년도에 8% 정도에서 2017년도에 15%로 친환경농업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5개년계획 발표했는데 2009년부터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하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이종배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품목별로 차별화해서 하면 어떨까. 곡류라든지 과실류 또 채소·특용작물 기타 이렇게 좀 나뉘어서 하고,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도 재배 난이도라든지 소득차 유사 정도나 사업추진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나뉘 가지고 하셔야지 똑같이 친환경으로 하고 그러니까 잘 안 되고, 또 이번에 뭐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기농직불금은 도입해

서 차질 없이 진행할 거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많지도 않거든요. 한 2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확보해서 추진해야지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품목 특성이라든지 재배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친환경직불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마 적용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익적 가치 이런 게 높은 친환경농업이 실제로 농가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농민들이 그런 걸 더 바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경청장님, 지난 국감 때 본 위원이 신행 방법조끼가 필요하다, 시급하게 보급돼야 되겠다는 걸 지적했는데 5개년계획 전체에 드는 예산이 한 6억 정도 된다는 거지요, 7억 정도?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예, 그 정도 듭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1억 4000 세우고 5개년계획으로 단계별로 하겠다, 보급하겠다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실제 위원님 그 지적은, 올해 구입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일괄적으로 한 4억 반영을 해 가지고……

○**이종배 위원** 올해 1억 4000이고 앞으로 6억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올해 한 3억이 반영이 돼 가지고 구입 중에 있고요, 내년에 한 4억이 계상이 돼서 그래서 내년이면 다 일괄보급이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4억만 확보되면 별문제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산에 반영됐고요.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예.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본 위원이 국감에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잔반이 많이 나와 가지고 잔반처리비만 5년간 388억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회의를 하셨네요. 관계부처 간 회의를 하셨는데, 농식품부에서는 학교에 바른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한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바른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식을 바꿔서 지금 안 먹는 것을 먹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왜 그걸 안 먹는지, 맛이 없고 그래서 안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 먹고 한두 숟갈 형식적으로 먹고 버리고 또 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도시락을 싸 오기도 하고 빵도 사 먹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조사를 하고, 음식물이 좀 더 영양가 있고 학생들이 맛있어서 먹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개발을 하든지 이거 농식품부에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실태조사하고 지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실태조사하는 데 용역비 한 1억 정도만 시범적으로 줘서 해 봐도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 예산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야 잔반도 줄어 들고 이 잔반 치우는 비용이 매년 느는데 그것도 좀 줄어들 수도 있겠고 학생들도 튼튼해져서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건강한 상태로 성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 실태조사는 현재 지방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사를 하기 전에 저희 부하고 환경부 교육부가 같이 만나 가지고 실태과약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수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습니까? 용역 필요 없습니까? 보니까 잔반이 얼마 남느냐 그것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안 먹고 음식물이 어떤지 이걸 전문가들이랑 해 가지고 이걸 학생들이 먹을 음식인지 그런 걸 좀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정도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좀 하시든지 해서 꼭 실태조사 해서 학생들이 찾아서 먹는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금 현재도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조사항목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혹시 저희들 입장에서 좀 더 추가하거나 보완할 게 있다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성엽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효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대 위원 안효대 위원입니다.

농림부장관님, 내년도에는 가공용쌀이 수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가공용쌀이 내년도에도…… 일단 그런 구분 자체가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것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기존의 수요 패턴을 갑자기 바꾸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일부 가공용도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효대 위원 그러면 오전에 존경하는 유승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부정유통 방지책 예산이 반영 안 됐다 그러시니까 반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 재편하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반영하세요.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그걸 해서 이번에 소위할 때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장관님, 그렇게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하여튼 소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안효대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을 짜란 말이지요. 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기제가 필요한 건지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한 건지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지난 7월에 농가소득안정 및 쌀산업대책 발표를 하셨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대책 중에 보면 발농업직불금 그다음에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단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발농사직불금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219억이 감액돼서 1128억이 반영이 됐네요. 장관님, 그러셨지요? 감액이 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안효대 위원 지금 보면 전체 발농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보니까 26개 품목만 대상이 되어 있고 역시 논이모작직불금의 단가가 인상이 되지 않았습시다. 단가 인상하고 전 품목으로 하게 되면 대략 한 1982억 정도 되지요,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안효대 위원 그것도 증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논이모작직불금 단가를 올려 주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한 151억 정도 들 겁니다. 이 부분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 부분도 반영할 때 들어가시고요.

농지규모화사업 증액도 마찬가지로인데 이것도 보면 농지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니까 754억만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이것 지금 장관께서 발표하신 대로 하시려고 그러면 얼마가 더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때 단가가 평당 3만 원입니까? 3만 원에서 5만 원 한다고 그랬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시다.

○안효대 위원 5만 원 하게 되면 532억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하네요. 이 부분도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농업자금 이차보전액 2914억 원 중에 보면 1147억만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농업종합자금 금리가 현 3%에서 2%로 내릴 계획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기준금리가 그렇습시다.

○안효대 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농축산경영자금 금리도 지금 낮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연방 FTA 피해대책으로 도축가공업체 지원금리도 현행 3~4%에서 1~2%로 인하를 하기로 했고 또 한중 FTA 대비해서 축산경영종합자금 또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사업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쌀 관세화 및 FTA 대책의 일환으로서 농업자금 이차보전액 예산 총 442억 중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안 됐습시다.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도축장 구조조정지원법에 따라서 도축장 구조조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9억 4500만 원인데 다 집행이 됐지요? 내년도에도 보니까 9억 4500만 원인데, 2015년까지

36개소를 감축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29개 해서 41.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166억 정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보면 민간에 맡겨 놔서 구조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저조하고 그리고 자금은 계속 쌓여 가고, 이것 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점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금이 많이 있는데, 정부가 의지를 갖는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요. 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또 누차 말씀드렸지만 울산에도 지금 한 곳이 있는 게 74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요. 이것도 한 40년 됐는데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해수부장관님, 서부아프리카 수역 원양어선,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그렇습니다.

○안효대 위원 그래서 원양어선의 규모감축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감척을 상당량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이번에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는데 계속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꼭 반영을 하셔서 불명예스러운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또 실제로 보면 지금 감척대상 어선이 23척 정도 되네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47척 중에 한 23척 정도는 감척해야 해결이 됩니다.

○안효대 위원 23척인데 대부분 다 30년 이상 노후선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그다음에 국감 때도 역시 지적했는데요, 울산신항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신항 1조 6000억 들여서 건설하고 있는데 본항하고 신항 간 진입도로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도 보면 설계비 한 26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반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안효대 위원 2020년 되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해야 그때…… 지금 해도 제가 보기에는 늦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비 그것도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동북아 오일허브항 보게 되면 1단계 사업은 지금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2단계 사업 보게 되면 이번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2단계 사업 보면, 남방파제 2단계 2공구 이거 지금 설계하고 공사하고 그러면 한 5~6년 그냥 갑니다. 2020년 하려고 그러면 이것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효대 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니까 조금 더 봅시다.

농림부장관님, 친환경직불금 예산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좀 늘어났네요. 한 15% 정도 늘어났지요? 늘어났는데, 보게 되면 동일면적 대상으로 해서 동일한 금액 이것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은 연장을 한 3년 정도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그전에 보면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면적 대 실제면적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지난해에도 보게 되면 한 66%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계획 대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 부적격자와 사업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작년에 보니까 부적격자 사업포기자가 21%나 됩니다. 친환경 농업정책 계속 장려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장려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예산은 늘어났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운영이라든지 관리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 좀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각오를 다져

야 되겠다……

○**안효대 위원** 그런데 예산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산은 늘어났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인증이라든지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농가들도 생기고 이랬는데 앞으로 잘 추슬러 가지고 친환경농업이 그야말로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성엽** 안효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부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심사에 대비를 해서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요구액, 반영이 일부된 것도 있을 것이고 전액된 것도 있을 것이고 전액 반영되지 않은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반영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다가 요구한 내역과 반영 정도 그 자료를 예산소위 심사에 대비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농림부장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 예산확보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이 2020년까지 5개 지구에 총 2025억 사업비로 해서 편성됐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이거 2015년 예산안 수준으로 지원을 계속하면 처음 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철동지구라는 데는 사업기간이 15년, 원남은 10년, 초계지역은 14년, 한림지역은 10년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해 갖고는 사업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예산을 확대해서, 지금 편성하려는 것보다는 적어도 배 이상, 다시 말씀드리어서 매년 한 300억 수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장관님 견해 어떠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사업을 시작해 농

고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경대수 위원** 장관님, 말하자면 예비비적인 성격을 갖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증액 효과가 없고 어떻게 보면 편성과정의 눈가림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I 방역대책 살처분 보상금 이것은 지금 농림부에서 살처분 방침 자체가 많이…… 개선방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8월 달에?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에서 앞으로는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방적으로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과 배치되게 살처분 보상금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또 재해대책비도 최근 5년간 평균 집행액이 1000억 정도인데 2015년 예산에 그 2배를 지금 편성해 놔단 말씀입니다. 이게 실제로 집행이 되고 그럴 성격이 아니고 예비비는 재해가 발생해야 되는 건데 이것 결국 집행 안 되면 증액했다는 것 눈가림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일일이 대답드리기보다는 예산심사소위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다만 조정된 예산만큼은 우리 농식품부의 다른 재정사업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경대수 위원** 다른 쪽으로 좀 돌려서 편성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다시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년도에 송아지 생산두수가 적정두수 이하로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한 78만 내지 80만 두가 송아지 적정생산 두수인데 지금 72만 정도, 소규모 번식농가는 고령화나 폐업 등으로 인해서 점차 감소해서 20마리 미만의 농가가 2010년도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계속 방치해 놓으면 앞으로 한우 생산기반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큰 수소 생산비는 541만 원인데 시장가격은 551만 원으로 이거 뭐 비슷한 수준이지만 송

아지는 지금 가격이, 수송아지는 금년도 7월에 227만 원 또 암송아지 199만 원 그런데 이 생산비는 그것을 초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339만 원 2013년도 기준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9월에 영연방 3국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우산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생산자단체의 생축장을 활용한 우량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이래 놓고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마련이 안 된 것 같은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저희들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반영을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송아지의 번식기반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싶고 이것을 위해서는 지역축협에서 운영 중인 생축장 이런 것을 번식우 중심으로, 송아지를 기르는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 이걸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위에서 심의할 때 같이 좀 상의를 드려 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농촌진흥청장님, 농작업재해예방사업이라고 있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내년엔 처음으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조금 확보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런데 지금 15개소에 3억 750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해 갖고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농작업 재해 발생과 관련해서는 보상보다는 사전 예방이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지금 보기에.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공감합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농작업 재해 예방 시에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연간 한 4000억 원 정도가 절감된다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각 지역별로 균형을 맞춰서 전국에 한 120개소로 늘려서 한 30억 원 정도만 되면 된다고 그러는데, 증액 필요성은 없어요? 25억 2500만 원 더 늘리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뒤 15개소를 해서 도별로 한두 개밖에 안 돼서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해수부장관님 수고 많으셨는데, 해사안전감독관제 운영을 위한 선행절차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한 53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사안전감독관제 이걸 하려면 그에 따른 준비가 지금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인력 규모에 대해서 안행부하고도 협의가 지금 맞춰져야 되고 또……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안행부하고 협의는 맞춰졌습니다.

○**경대수 위원** 시행령 이런 것도 다 완비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아직 다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시행령은 11월 15일 공포 시행 예정이고요. 그 인원 규모에 대해서는 안행부 협의를 거쳐서 지금 기재부 협의 진행 중입니다. 곧 될 것 같습니다.

○**경대수 위원** 차질 없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준비한 것……

장관님, 오늘 석간신문에도 1면 톱이 뭘 줄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것 오전에도 질의가 나온 걸로 아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그 내용,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보류했다고 하는 게 좀 믿기가 어려운 게, 지금 종합해양과학기지도 독도 앞에 세우려고 그러다가 사실상 백령도 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때 이유가 문화재청의 승인을 못 받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임 장관 시절이지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또 이번에 독도입도지원센터도 정부에서는 그렇게 발표했지만 오늘 신문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이겼다 뭐 이런 취지의 ‘축제 분위기다’ 이런 기사가 나 있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예산편성 안 하고 이것 문제를 안 삼았으면 오히려 국민들 자존심은 안 상하고…… 독도가 이렇게 한 발 한 발 자꾸 물러서

면 일본한테 오히려 발언권을 더 강화시킨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일본 측에서 관방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도도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분명한 영토고요, 영유권 분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도지원센터 건립하는 건 계속 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재검토가 좀 필요해서 보류한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대수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공사를 강행해서 세우면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이 이것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면 우리가 확실한 승산이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이래서 이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철회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러선 것 자체가 일본으로 하여금 더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는 판단 안 하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뭐 무슨 국제분쟁이라든지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을 수 없고요. 저희들은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들은 해 나갈 것입니다.

○**경대수 위원** 장관님, 그러면 독도영토대책단 이것 지금 우리가 편성을 해 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법을 바꿔서?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총리 산하에 있는 거지요, 이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 회의를 통해서 환경과 경관과 안전성 등 다른 부처가 제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검토해 갖고 그러면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시기가 개략적으로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가능하신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제가 하여간 그 보완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제가 보기에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고 국민들이 상당히 감정이 격앙되어 있으시고 또 분개하는 부분도 많으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을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말로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도입도지원센터가 조속한 시일 내에 독도에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이렇게 된 데 대해서 해수부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불찰이 있기 때문에, 저의 불찰입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잘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성엽**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南 委員** 김승남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났습니다마는 이 FTA 직불금, 쌀변동 직불금, 재해대책비, 살처분 보상금, 이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불용익이 무려 3953억이에요.

그래서 연례적으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우리 농업예산의 목적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마치 농업 예산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굳이 부풀리기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의 생각만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다소 과대 산정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정말 알뜰하게…… 애써서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金承南 委員** 애써서 확보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기재부에서 신청한 예산보다도 더 많이 주고 뭐 이런 것이 있어서 한 것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하여튼 예산을 좀 더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이번 소위……

○**金承南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알뜰하게 쓰는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차라리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그대로 두고 농업예산을 좀 실제로 다른 예산에 투입할 의향이 없냐 이거지요, 농어촌이 어려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위에서 논의를 하실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협조를 해 주신다면 그런 예산들을 실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金承南 委員** 그리고 장관님께서 좀 강력하게

기재부와 상의를 해서 부풀리기 예산 이것이 실제 예산으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金承南 委員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金承南 委員 원양어업 관리 해사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있습니다.

○金承南 委員 이게 2017년까지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그렇습니다.

○金承南 委員 이게 사업 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한미 FTA 보전대책으로 수립된 사업인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한미 FTA 미발효로 사업이 유보됐었고요. 2012년부터는 사업 신청이 없어서 이제 불용이 됐는데 대상 어종도 민어만 되어 있지만 좀 더 확대를 하고 원양어업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원양어업협회하고 좀 더 긴밀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承南 委員 품목을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영세업체의 담보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金承南 委員 처음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承南 委員 그리고 수산물이력제,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구축예산은 실제로 이 이력제의 가입률을 높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요. 가입률을 높여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실제로는 업체의 지원금액이나 라벨지, 포장지, 뭐 홍보 관리 이런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지금 16억 3000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수산물이력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인쇄용지, 라벨지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적극 지원하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承南 委員 그리고 귀어·귀촌사업…… 귀농·귀촌사업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마는 귀어·귀촌사업이 상당히 좀 부진하고 있고, 예산을 보면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비 1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귀어·귀촌사업을 기왕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센터 운영을 좀 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金承南 委員 예.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신원섭 예.

○金承南 委員 남북 산림협력 중요성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또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 예산 확보가 힘들니까? 이 계획이 지금 안서서 그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아닙니다. 계획이 저희들이 뭐……

○金承南 委員 계획은 서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모든 사업이 한정되어 있는데 자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좀 노력해서 남북협력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承南 委員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성엽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 박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장관님, 청장님들한테 같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농업예산의 문제점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해수부 예산도 비슷한데, 첫 번째 문제는 예산 증가율이 현저하게 낮다, 두 번째 또 하나 문제는 배정된 예산도 수시배정이 많아요. 수시배정이 많아서 수시배정은 대부분 하반기 10월부

터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월·불용되는 예산 중에, 이월·불용되는 예산 내역하고 그리고 전체 불용되는 예산 중에 수시배정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빨리 자료 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을 청장님, 장관님별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 중에 역점사업이, 수시배정에 대해서 이월·불용된 것 중에 역점사업, 대표적으로 한두 개씩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하는 데 예산을 양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배정 안 하게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한번 파악을 해서 조금 이따 제 질의 끝나면 말씀 좀 해 주시고.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간사, 김우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민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예정처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기준이 아마 한 8월 말이나 9월 말 정도 기준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014년도 예산의 이월 집행률이, 이월하고 불용률이 그게 수시배정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월·불용된 것인지, 수시배정이 아닌데도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빨리 좀 정리하셔서 부별로, 청별로 간단하게 말씀 좀 일단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민수 위원 그리고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신원섭 예.

○박민수 위원 여기 지금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우리 진안 사업인데, 이게 어제 예타가 1.25인가 1.24로 사실상 통과됐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청장님?

○산림청장 신원섭 예,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민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기재부는 이 발표를 11월 12일 날인가 한답니다. 11월 12일 날 하는데 11월 12일 날 하는 이유는 올해 하반기 예타 발표를 11월 12일 날 하면서 올해 예산에 안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본격적인 예산심사 이후에 예타 결과를 발표를 하고 공식화시켜서 예산을 하려고 하는데 청장님께서 이것, 제가 예결위 쪽으로도 문제 제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챙

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기재부를 계속 설득하겠습니다.

○박민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기재부의 예산 시스템을 보면 11월 중순에 예타를 발표한 것은 절대 다음 예산에 올려놓지를 않거든요. 예타 시기를 그렇게 미루는 겁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의 이후에, 압박 때문에. 그러면 1년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잖아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박민수 위원 아무튼 청장님 노력해 주시고 저도 제 나름대로 한번 노력을 해 볼게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민수 위원 그리고 장관님, 임실 내 이것도 대선 공약인데 지금 예타 중인 사업에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한 1000억 정도 예산을 했다가 지금 550억 기준으로 예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장관님이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이것은 아마 이번에 발표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11월 12일 날 발표하지 않는데 내년 예타가 혹시 나오면, 또는 예타 과정에서라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드린 것 혹시 준비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직 자료를 뽑고 있는데요.

○박민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저 나중에 6분 쓰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수시배정 그것……

○위원장 김우남 5분 쓴 겁니다, 5분.

○박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유성엽 위원 유성엽 위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오전에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19일 담화에서 특히 해경 쪽을 이야기하면서 ‘예산이 부족했다’ ‘교육도 많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수부의 안전예산도, 해경의 안전예산도 대단히 미흡하게 반영이 된 것 아니냐, 정부가 말로만 국가대개조까지 이렇게 외치면서 뭔가 새로운 안전한 나라 이것을 외쳤지만 실질적인 예산 반영을 보면 정부에서 그동안 해 온 이야기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소위심사 때라도 좀 더 필요한 만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이번에 안전대책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뒀서 예산증액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충분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심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인력이 아직 확정이 안 됐더라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해서 미리 세워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해경청장도 마찬가지이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유성엽 위원 물론 저 개인적인 견해와는 다른 식으로 국민안전처로 옮겨 가게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실질적인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나중에 넘길 때 넘기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은 충분하게 차질이 없도록 확충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농림부장관님, 지금 쌀 관세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까? 현재 WTO 국가들에서 반응을 보인 나라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단편적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그런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유성엽 위원 어떻게 쌀 관세율 513% 또 MMA 수입 쌀 용도제한 폐지 문제는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쌀산업 발전대책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미흡해요. 그래서 소위심사를 앞두고 어떤 부분들이 얼마만큼 더 반영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책을 제출하고 일부 또 미흡한 부분들 가지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이번 심사과정에서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적극적으로 자료를 내주세요, 농림부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유성엽 위원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한·호주 또 캐나다 FTA 관련해서 축산단체장 농성이 단식 15일째를 맞아서 오늘 풀렸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유성엽 위원 사실 제가 어제 만나서 ‘더 이상 건강이 상하면 안 되니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라도 책임질 테니까 일단 풀어라’, 그렇게 어제 간절하게 우리가 권유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대책을 잘 세워가야 할 것 같아요. 아마 내일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유성엽 위원 나올 때 기존에 아마 2조 1000억 대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마는 9개 요구사항 또 개별적인 축종별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식품부 입장뿐만 아니라 특히 기재부의 의견까지, 적극적인 의견까지 담아 가지고 내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런데 무역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무역이익공유제? 사실 제가 법안을 자세히 보니까 아무 구속력도 없는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할 뿐이던데 왜 그것을 그렇게 굳이 정부에서 반대를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글썄,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성엽 위원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저희들은 기본적인 취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엽 위원** 지금 현재 축산단체가 단식농성을 하면서 요구하는 9개 요구사항 중에 보면 사료대책 관련해서 사일리지 제조비 국고 지원 확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농민단체 대표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절반으로 딱 떨어져서 편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일리지 제조비 국고 지원 문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한·호주 대책을 대비해서라도 더 세워야 할 이야기인데 정작 한·호주 FTA 비준을 해 달라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도 절반 이하로 줄여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기본이 아마 이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까지 우리가 FTA를 맺을 때마다 한·칠레 할 때 1조 2000억 하겠다, 한미 FTA 할 때 24조 1000억을 하겠다, 한·EU FTA 할 때 2조 하겠다, 그다음에 이번에 한·영연방, 호주 할 때 2조 1000억 해서 지금까지 29조 4000억이 제시가 됐어요. FTA 할 때마다 대책비가 이렇게 몇 조 단위로 제시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아침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까마는 일반 국가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우리 농업예산의 증가율이 낮다 보니까 농업예산의 비중은 매년 더 줄어들어 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다 알았어요. 뭐냐 하면 FTA 때마다 몇 조 단위 대책을 제시하는데 정작 보면 농업예산 비중은 줄어들어 가니까 ‘야, 이것 조삼모사구나’, 대개 그동안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이것 완전히 원숭이들 가지고 장난하는 조삼모사구나…… 정말 이러니까 아무리 몇 조 대책을 제시해도 농업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또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내일 여야정 협의체를 하실 때 정말 이제는 진솔하게 2조 대책이 아니더라도 차라리 1조라도 진실된 내용의 대책을 내놓으셔야 한다, 이제 우리 농민들 속지 않습니다. 하루만 들여다 보면 금방 이게 얼마나 조삼모사식으로 돌려먹기를 했는지가 다 드러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동안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 한·영연방 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또 쌀 관세화 대책을 하면서 신규사업 그리고 또 순증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대책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유성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 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에서 계속 의논해 나갔으면 합니다.

○**유성엽 위원** 대통령께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해 달라 이렇게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서. 괜히 이것 밀고 당기고 흥정할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이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유성엽 위원** 그다음에 한중 FTA 지금 어느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어느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맺었던 FTA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 쪽에서는 한중 FTA가 매우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엽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만약에 한중 FTA를 어떻게 맺어야 한다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아주 높은 수준으로 맺으십시오, 차라리. 이것을 높은 수준으로 화끈하게 맺고 대신 농업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게 마지막 FTA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중 FTA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 대책도 화끈하게 찾아 가지고 농업인들이 아주 박수치면서 한중 FTA를 그냥 통과하는 것을 환영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농업을 위해서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괜히 어정쩡하게 애매한 수준으로 이것을 맺어 놓고 또 대책은 대책대로 소홀히 하면 죽도 밥도 아닌 경우가 될 것 같다. 차라리 높은 수준으로 맺되 농업 대책을 아주 좀 적극적인 대책을, 마지막 대책을 한번 정부에서도 쏟아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요?

너무 자꾸 초민감품목으로 제외만 시키겠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생각

을 한번 더 깊게 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는 농업 쪽에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설사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지막 FTA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성장 산업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말농업 분야 같은 경우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해수부장관님께 어구 사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질의를 준비했는데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서 세목망 사용 문제요. 물론 저도 해수부 서면답변을 즉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다 보니까 교육지책인데 적어도 몇 치잡이 성어기인 9월, 11월 달 같은 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수부에서도 그런 입장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지금 그런 안을 가지고 이해관계인들하고 의견을 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유성엽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도지사 어업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수부에서 잘 지도 감독을 해서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근해 소형선망어업 중에서 세목망 사용기간 제한이 너무 일률적이어서 문제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보니까 해수부 답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해수부가 아주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 그런데 근해 형망어업의 경우에 법정어구 사용이 키조개 등 패류를 잡는 것인데요. 그런데 기존 법정어구를 사용하면 키조개가 부서지잖아요, 상해지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쇠갈퀴가 있어 가

지고 그렇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래서 이것은 법정어구를 바꾸어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지금 바꾸도록 관계자들 의견 수렴 중인데 다만 거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잠수기조합이 또 있습니다. 그쪽하고 잘 조율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러나 근해 형망어업에서도 가장 비중을 높게 잡는 것이 피조개더라고요,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물론 잠수기 그런 부분들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더라도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맞지 이것 기왕 잡고도 다 껍질 부서지고 깨지고 하면 상품가치가 완전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지금 현재의 어구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유성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尹明熙 委員** 장관님,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이 몇 년도까지 하기로 원래 사업계획에 나와 있었지요?

뒤에 아시는 국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尹明熙 委員** 그만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장관님, 지금 제가 2015년 예산안에 보니까 '2014년 사업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2014년도까지 사업이 2013년~2014년도까지 해서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뜻이지요? 이 사업 자체가 종료됐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사업 명칭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尹明熙 委員** 그것까지는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국에 네 군데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尹明熙 委員 충남 하나, 전북 하나, 경북 하나, 전남 하나, 지역에 골고루 분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尹明熙 委員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직은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단히……

○尹明熙 委員 12월이 공정 마감입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尹明熙 委員 완공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데 호응들이 아주 좋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尹明熙 委員 제가 그 당시 이 사업에 참여했던 몇몇 분들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았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처음에 이 사업에 관여할 적에는 이 사업이 하나의 연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잘못된 거나 개선할 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다음 연도에는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런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안농마을이나 영주 두산마을을 가봤을 경우에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장관님도 진도 안농마을 가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갔을 때 주민들이 정말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정부로부터 이런 관심과 혜택을 받으니 정말 좋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尹明熙 委員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정말 열악한 농촌의 주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 12월 달에 지역희망박람회에서 이 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나타내기로 했지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도에서 이쪽을 찾아와서 어떻게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성과를 보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尹明熙 委員 그런데 이 사업 예산 폭지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게 지금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연계협력사업으로 되어 있는 데요. 이게 그쪽으로 계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예산보다 사업 규모는 늘었습니다마는 명시적으로 이 사업이……

○尹明熙 委員 장관님, 사업 규모를 늘렸다는 것은 이때까지는 개수가 작은 것을 그 규모를 더, 개수를 늘렸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尹明熙 委員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지금 지역발전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여기의 평가에 보면 그동안에 지역발전위원회가 3년간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 보셨습니까?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농림축산부 예산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발전위원회하고 농림부 두 군데에서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을 관장을 하도록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이 사업 해 가지고 실집행률이 아직 부진하다, 그래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더 있다고 여기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지적을.

그리고 이 위원회가 붙으면 여기는 그냥 사업을 진행합니까? 지금은 농림부가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비용이? 지역발전위원회가 가면 그냥 여기서 공무원처럼 일합니까?

제가 예산을 두드려 보니까 농림부 예산은 네 군데에서 지금 19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45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예산은 46억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尹明熙 委員 29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차 떼고 포 떼고 무슨 예산을 똑바로 하겠습니까?

지금 각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농림부 예산을 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지역발전 회계의 보조사업으로 넣습니까?

그리고 리모델링사업이 이 안에 들어가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라는 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법 위반 아니에요?

농림부가 그래도 농림부 예산을 가지고 우리의 열악한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어떤 결의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정부 들

어와서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까지 개별 부처별로 중앙에서 하던 것이 지역에서 서로 연계·협력해서 하자 이런 얘기들이……

○尹明熙 委員 그러면 다 주지요. 장관님, 그러면 다른 사업도 다 지자체로 달라고 하는데 다 주시지…… 이 사업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제 새롭게 추진 체계를 갖추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낙 이것이 호응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사업추진지침 이런 것을 만들 때에 농촌에서 리모델링사업이 좀 더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尹明熙 委員 장관님,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도 아직 없습니다, 지역발전위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농림부가 어떻게 농촌의 주거 개선을 한다면서 검증되지도 않은 이런 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넘긴다는 말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역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정부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다만 그 지역위에서 하더라도 농촌의 주거환경개선 이 부분은 농림부가 좀 더 챙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농촌의 주거환경이라는 것이 주택만 되는 게 아니라 도로니 종합적으로 다른 부처의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尹明熙 委員 도농은 처음에 리모델링사업 할 때부터 그것은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많은 논란이 되었지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인구수나 모든 면에서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 결론으로 해서 농촌이라는 말이 들어갔던 겁니다,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하여튼 관계부처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尹明熙 委員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의 사업도 되지만 어촌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해수부와 협력을 해서 가지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그냥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에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고 주는 것 같으면 예산도 더 쪼개집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 하나까 우리 농림부 것은 45억이고 여기는 46억이라고 했지만 그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29억밖에 집행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FTA 등 어려운 농촌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이 합쳐 가지고 했고 그래서 이게 배분도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남·전북·충남·경북?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그런 연락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 참여하신 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이 기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기를 꺾는 이런 사업을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한 번 더 검토하기 바랍니다,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尹明熙 委員 장관님, FTA 대책으로 쌀산업 발전대책 발표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尹明熙 委員 그 안에 어떠한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생산기반 정비, 소득 안정 그다음에는 수입쌀과의 차별적 유통 등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尹明熙 委員 이모작도 들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尹明熙 委員 제가 지난번 국감 때 밭직불금 중복 작물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尹明熙 委員 그래서 경관작물 중에 준경관작물에 밭직불금에 해당하는 품목이 들어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밭직불금 금액 안 올라갔지요? 인상 안 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尹明熙 委員 그래서 경관직불금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품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밭직불금이나 이런 부분의 이모작의 율이 낮아진 것 아닙니

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尹明熙 委員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하셔서 논 이모작 직불금이 정상적인 예산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경관작물에 있는 작물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尹明熙 委員 논 이모작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도 아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왜 41.1%밖에 신청이 안 됐나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이게 준경관작물에 있는 품목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100만 원 주는데 밭작물금 여기 이모작에는 40만 원 주는 것 같으면 누가 이쪽을 신청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은 고치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쌀밭전 대책에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덕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덕수 위원입니다.

이동필 장관님, 지금 저희 지역이 서북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오늘도 지역분들을 만났는데 가뭄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하고 있어요. 다른 해 같으면 지금 저수지가 어느 정도 저수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바닥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내년도의 벼이랑 자체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좀 들으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도 이북지역의 가뭄 때문에 농업인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 들었고 특히 강화 같으면 지금 저수율이 40%도 못 되는 수준이라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안덕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전반적으로 지난

해에 비해서 강수량이 한 절반 수준인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 농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영농에 대비해서 저수지의 물가두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안덕수 위원 사실 우리가 저수지를 유지 관리한다든지 또는 다목적용수 개발한다든지 이런 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매년 필요한 예산의 한 10분의 1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한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특히 내년도에는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여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확보한 예산을 보면 작년 수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쪽 가뭄지역 예산으로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수 확보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리시설 유지관리, 이 유지관리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저수지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 관리, 배수 개선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 여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덕수 위원 이것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농림사업 실시요령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안덕수 위원 그 사업별로 보면 불용이 나는 게 있고 또 매년 다 소진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중 FTA도 있고 또 영연방 FTA도 있고 또 쌀시장 개방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전반적으로 그 지원 프로그램을 재검토를 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안덕수 위원 지금 보면 지역별로 특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전국 공통의 지원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 되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지원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유사한 농업을 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해소하고 또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경쟁력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지금 지역별로 주산단지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침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시·군 단위의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이것을 전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선택 또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덕수 위원** 사실은 그 실시요령을 제가 94년도에 작성했는데 그때 그 답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요 일선 시·군의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답이 나왔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협의하면 좋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덕수 위원**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안덕수 위원** 불법조업 단속문제 보니까 해수부에서 어업지도선, 이게 어업관리단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어업관리단이라고 해서 서해·동해에 있습니다.

○**안덕수 위원** 그리고 해경에서는 함정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해경은 조금 다른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선 단속실적이 해경보다 한 5배 정도 높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덕수 위원** 그것 왜 그렇지요? 그 차이가 뭐예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단속방법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이 그쪽에서 그 전부터 본래 불법조업 단속을 해 오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성도 있고 또 노하우도 나름대로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덕수 위원** 그래서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 지적해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해경에서 항공기를 가지고 현장을 상공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단속하려면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안덕수 위원** 그런데 불법조업 확인정보가 어업관리단에 제공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게 좀 원활히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점입니다.

○**안덕수 위원** 그게 통신망 문제입니까, 아니면 협력문제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기관 간의 차이가 있고 해서, 그런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비한 게 지금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안덕수 위원** 그런데 열두 시간이라는 건 그건 너무 긴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그래서 어업관리단도 지도 단속하는 데 항공기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점들, 그 필요성들을 저희들이 지금 많이 역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덕수 위원** 별도로 있더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정보가 공유되는 게 좋습니다.

○**안덕수 위원** 별도로 있더라도 해경의 함정에도 동시에 보내 주고 어업관리단에도 동시에 보내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안 되기 때문에.

○**안덕수 위원** 해양경찰청장님 그게 왜 문제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것 해소가 안 됩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일단 장관님 말씀대로 기관이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정보 공유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합동작전이나 이런 걸 하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간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안덕수 위원** 그것 저는 아무튼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것 꼭 주면, 같이 양쪽에다가 정보를 던져 주면……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실시간 영상을 지금 저희가 구축 중에 있는데 거기 중국어선 촬영한 게 양 기관에 바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걸 가지고 다시 또 전달해 주는 식이다 보니까 시차가 좀 생기는

사항입니다.

○**안덕수 위원** 그리고 한중 잠정조치수역, 이게 공동어로구역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안덕수 위원** 여기서 지금, 이게 굉장히 넓은 지역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그렇습니다.

○**안덕수 위원** 그리고 여기서 단속하고 순시하는 것이 우리 어선, 중국 어선 단 2척이 그걸 순시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것 공동 순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공동 순시는 한중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난번 중국 어선 선장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그냥 연기를 했던 것인데 최근에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금년 연말까지는 꼭 공동 시행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봤습니다.

○**안덕수 위원** 그러면 여지껏 시행을 안 한 것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공동 순시는.

○**안덕수 위원** 공동 순시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안덕수 위원** 그러면 일단은 빨리 시행하는 게 먼저네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빨리 시행이 돼서 사실은 중국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제도하고 단속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중국 기관에서 조금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서……

○**안덕수 위원** 그것 왜 그렇지요? 지금 중국 어선들이 우리 단속에 심하게 단속 안 되려고 저항하는 이유가 중국에 통보되면 자기들이 받는 불이익이 굉장히 크대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기는 한데 중국 어선 수가 워낙 많아 가지고 통제가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안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첫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제가 파악해 봤더니 추가질의를 하실 분들이 꽤 있으세요. 쉬었다 할까요, 그냥 계속할까요?

○**이이재 위원** 계속……

○**유승우 위원** 계속하지요.

○**위원장 김우남** 계속합니까?

집행부도 괜찮습니까, 계속해도?

○**안덕수 위원** 추가질의 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신정훈 위원** 잠깐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김우남** 계속하자고?

○**신정훈 위원** 쉬었다……

○**유승우 위원**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추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훈 위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신정훈 위원**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을 했고 또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인데요. ‘광양항과 부산항이 실제로 우리 국가정책에 있어서 투포트(two port), 양항 정책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고 총리께서도 ‘확고하게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신정훈 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액면적인 액수만 가지고 표현하면 장관님이 어떻게 이야기 하실지 모르는데 시설의 낙후 또 규모, 운영상황 이런 걸 보면 국가가 기본적으로 정한 양항 정책이라는 게 좀 무색할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정부의 예산 반영 내용도 매년 그래 왔습니다마는 2015년도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항은 1344억 원이 배정돼 있는 반면에 광양항은 10분의 1인 110억, 전년도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물론 부산항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평택항 또 인천신항, 북항 또 울산항, 예산규모를 잘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신정훈 위원** 거기에 비해서도 5분의 1 이런 정도 되는, 10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정부가 광양항은 예산을 투자할 소요사업들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안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필요한 사업들은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절차들도 거쳐야 되고 예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기에 진행이 잘 안 되고 또 견해 차이가 있고 이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이를테면 광양항이 신생항만으로서 300만TEU 그런 자립 항만으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 내용도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그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아직 시급하지 않은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좀…… 현지에서는 대형 크레인 1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3기 정도 더 필요하다, 필요한 예산이 한 36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요구받고 있는데 그런 요구 없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본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항만운영사나 PA나 또는 하역 선사가 시설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이지만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도 많고 여력이 없고 거기 하역사들도 좀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건 국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저희 부의 견해를 가지고 재정당국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정훈 위원** 여하튼 협의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광양항 낙포부두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개선이 굉장히 시급히 해 줘야 될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알고 있습니다. 낙포부두의 경우에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리뉴얼 사업을 바로 실시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타를 거쳐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안전에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은 예타를 생략하고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정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신정훈 위원** 지금 농어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이번에 한·영연방 FTA 대응예산 중에 65%가 융자로 돼 있대요. 금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사업에 따라 조금 다름니다마는 3%도 있고 그보다 좀 낮은 2.5%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혹시 재해대책 관련해서 영농자금 또 각종 농가부채에 대한 연기…… 금리가 얼마인지 아시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것도 3%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데요.

○**신정훈 위원** 농기계 역시 마찬가지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신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금리 자체가 시중 금리의 인하 폭을 반영하고 또 정책자금이라는 취지를 살린다면, 특히 또 영연방 FTA, 축산 농가들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0.5% 인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축산자금, 축산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신정훈 위원** 해당 부서에서 농림부에서 정책자금, 지금 농업에 대한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최소한의 생산비에 소요되는 각종 자금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농림부 입장으로 제기해 주시면 어때요? 농림부가 굉장히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3%가 마치 그냥 정책의 큰 수혜처럼 이야기하는 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정훈 위원** 지금은 3%, 시중금리에 비해서 절대로 정부가 인심 쓸…… 예를 들어서 FTA 대응예산이다 이렇게 내세울만한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히 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신정훈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협조를 해서 같이 이

문제를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

나중에 하실까요? 질문하시겠어요?

○**김종태 위원** 예, 조금……

○**위원장 김우남** 하십시오,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서…… 자료 좀 뽑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오전하고 맥을 같이하는데 정말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좀…… 정책은 다 있어요. 정책은 다 있는데 아마 실무 과장, 국장님들 참 아쉬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용수개발이라든지 농지매매사업 3만 원 하는 게, 98년도에 3만 원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5만 원으로 올리자고 하는 것들.

농기계 임대사업도 명분은 있는데 사실 시의 한 두세 군데 갖다 놓고는 면과 면이 다르면 농기계 빌리러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어느 거리를 두고 농축산부에서 확대해 나가는 게 꼭 있습니다, 계획들이요. 그러한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유통센터 직거래, K-푸드 이런 것들도 좀 확장한다고 하는 데 지원해 가지고 농수산물 유통이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지금 여러 가지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수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출하려고 하다 보면 정부에서 현지에 KOTRA를 데리고 오든지 뭐 데리고 와 가지고 점포도 열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도 배치하고, 농식품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나 이런 것 수출 몇 백억 불 하더라도 원자재가 외국 게 많거든요. 농산품은 수출하면 전부 다 우리 한국에 남는 돈입니다.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들지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해수부도 지금 해양경찰의 임무, 기능 제한되다 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의 불법어업 감시한다고 하는데 뭐 수단이

있어야 감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어업지도단 34척인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되겠는지, 안 된다고 그러면 임무, 역할도 더 늘어날 것이고 해양경찰이 내 소속으로 안 되다 보면 능력도 보장해 줘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수자원 관리 이런 것들도 좀 법이 있고 저거 하면 정말 농어촌의 관광이나 또는 자원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벌여 놓기는 벌여 놔는데 이게 마무리는 못 하고 있는 거다 이거지요.

제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지만 아마 농수로 이런 거던데 사업비가 12년간 들어가요. 이것 액수 올려 주면, 농식품부에서 10년을 당겨 놓는 데 얼마, 200억인가 해 달라고 그래요. 아니, 10년간 한 사업을 끌고 가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좀 빨리 할 것은…… 이게 전부 다 가뭄이고 수해 지는 것 극복이거든요. 좀 어렵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력하다 안 되면 국회의원을 탓입니다. 국회의원이 예산권 내놓으면 되지요, 예산편성권.

그래서 좀 농식품부하고 국회가 노력해서, 해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해서 정말로 어려운 쌀 관세화다 FTA다, 중국 FTA 지금 막 태풍이 돌아오는데 태풍 대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잘 모릅니다, 뭐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가지고 내주에 예산 심의할 때 좀 많이 증액된 안을 가져오면 제가 반갑겠습니다. 세상에, 증액시켜서 가져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깎으려고 그러지. 하여튼 같이 노력해 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이재 위원** 해양경찰청장님, 정부조직법이 오늘 상임위 통과했지요. 그래서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되는……

조직체계가 바뀌면 사업 예산도 변경이 불가피할 텐데 미리 선제적으로 좀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협약이 기이 진행이 돼서 준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이재 위원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VTS 문제입니다. 해경에서 항만관제 업무를 해 본 적이 있나요?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저희는 연안 VTS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해수부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나, 특히 이게 해양물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항만 경쟁력 차원에서 잘 좀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예, 알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아까 제가 독도입도지원센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해경청장님은 독도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독도에 한 서너 번, 기억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러니까 헬기 이용하셨을 거고, 함정은요?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함정으로는…… 주로 헬기로 갔습니다.

○이이재 위원 주로 헬기로?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예.

○이이재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

지금 해경 함정 중에 독도에 접안 가능한 게 몇 척이지요? 다 접안 가능한가요?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아닙니다. 300t에서 한 500t급밖에 안 됩니다.

○이이재 위원 우리 함정이 접안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지금. 개선해야겠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예.

○이이재 위원 풍량이 심할 때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물론 헬기로 하면 되겠지만 기상조건에 따라서 그것도 불가능할 수가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해경이 국민 안전도 지켜야 되지만 해경 조직원들의 안전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안전시설들을 선제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올해 30억 원 독도입도지원센터 예산이 불용되면 내년은 어떻게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그 예산 문제는 후속

대책을 좀 관계부처하고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이게 3년간 사업에 100억인데 올해 30억, 내년 20억, 그다음에 3개년도에 50억 이렇게 투입되게 돼 있었지요. 내년 예산이 기획재정부 안에 담겨 있습니까?

(김우남 위원장, 안효대 간사와 사회교대)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담겨 있습니다.

○이이재 위원 제가 예산소위원인데 변함없이 이거는 지키도록 소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 올해 안에 발주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속한 관계기관 재협의를 통해서, 진짜 대한민국 주권에 관한 문제고…… 그래서 차질 없이 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 관련 자료를 전부 한 47개가량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좀 대충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서 수십억 개의 수심정보를 축적을 했습니다. 이걸 연결시켜서 3D의, 3차원 공간정보로 변환시켜 내야 이게 다목적 활용이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그렇습니다.

○이이재 위원 이게 어떻게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사업을 해야 그게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도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이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V-PASS 시스템 지난번 국감 때도 제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운항 궤적을, 위치정보를 DB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이이재 위원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불법 면세유 사용 문제도 그렇고 불법 공조조업 이런 데에도 활용이 되잖아요, 소형 어선까지 이제 다 장착이 되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이이재 위원 문제는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차라리 안 고치고 다니는 게 편하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

규정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나는 수리를 못 하겠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국유재산인만큼 국비로 수리가 될 수 있게, 이게 또 특수장비라서 아무나 수리할 수도 없는 거라서 꼭 관련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 기간 중에.

○이이재 위원 기타 연안침식, 제가 문제 제기한 내용들이 많은데 모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효대 이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우 위원 유승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또 안효대 간사님도 말씀을 도와주셨는데 혼합쌀 유통 방지에 대해서 그 예산은 꼭 확보를 해 주시고요. 살처분 예산에 대해서도 수정을 해서 예결소위 할 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부하고 또 농진청이 같이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대 간사, 김우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난번에 벌꿀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국감 때 질의를 했는데 이것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책을…… 그때 농림부장관님하고 같이 말씀했나?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분노 골프장에 뿌리는 것 말씀……

○유승우 위원 아니요, 벌꿀 사업. 양봉, 토봉.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준 이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개량벌통이 사실은 좀 비용이 비싸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좀 낮추고 하는 조치를 취해서……

○유승우 위원 토봉하고 양봉의 차이가 뭐지요, 근본적으로? 어떤 기준이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일단 벌 종자가 좀 다르고요. 사양 방법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유승우 위원 토봉은 토종벌이란 뜻이고 양자는 기를 양(養) 자지요, 양봉. 맞습니까? 서양이라는 양(洋) 자입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서양에서 들어온 벌……

○유승우 위원 그래서 수시로 설탕 같은 걸 해 가지고 또 키우고 계속하는 것이고 토종은 오래 걸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꼭 좀, 토봉과 양봉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아인슈타인 아시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유승우 위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꿀벌이 사라지면 식물이 멸종하고 결국 인류도 4년 이상 버틸 수 없다. 이것은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어서 식량과 가축 생산이 줄어들어서 인류의 식량 수급에 위기가 도래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꿀벌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그런데 그러한 중요성을 생각할 때 농림부나 농진청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집행률도 12%에 그치고, 14년도 게. 내년도 예산은 또 4분의 1로 축소를 했습니다.

지금 토봉은 계속 폐사가 한 90% 이상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지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결위에서 단돈 10억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예결소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유승우 위원 그리고 시간이 저도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안전처로 해경이 이관이 되면서 해경청장님하고 해수부장관님, 정부조직법 개편에 의해서 그리로 가기는 하는데 먼저 해경청장님, 해양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그동안 공로도 많았는데 일단 어떤 소감이 드십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저희는 재난관리 일원화에 따라 가지고 국가안전처가 설립이 되고 저희 해경은 본부 조직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기능 변화는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

○유승우 위원 독립성과 기능성을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입장보다 더 확고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 같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별반 차이가 없고요. 어떤 면에서는 재난관리 부분은 더 강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우 위원** 이번에 여기 예산 올라온 것 봐도 안전 분야가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 분야가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잘해 주시고요.

해수부장관님 입장에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지난번 세월호 사고의 반성적인 조치로서 안전에 관련되는 예산을 보통 수준보다는 상당히 대폭 증액해서 반영시켰습니다. 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충분치 못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아쉬움이 큰 것은 해경이 폐지가 되고 그 쪽으로 가게 됐을 때 해양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도 한번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밖에 없다고 하니까 조정에서 폐지하라 그랬을 때, 폐지하고 육군에 들어가라 그럴 때 ‘아직도 이 신하에게 배가 12척이 있다. 미신불사, 이 신하가 아직도 죽지 않았습시다’ 하고 해경의 역할이나 해수부의 역할을 강조했더라면 그것이 관철되든 안 되든 수장은 그런 의지의 표명이 한번쯤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맞습니다.

○**유승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서 해양영토주권을 수호하는 책임은 해양수산부에 있습니다. 해경이 해양수산부 산하의 독립 외청으로서 경찰 기능을 가지고 해양영토 수호의 집행기관 역할도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해양영토 수호의 측면에서는 아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잘해 왔습니다. 이제 해경이 경비안전본부로 해서 국가안전처로 이관되기 때문에 혹시 그 기관의 해양영토주권 수호 기관의 이원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누수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엄정하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저는 장관님의 말씀을 꼭 믿고 싶고요.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독립성을 갖고 재난에도 즉각 대처를 하고 해양주권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전혀 다른 조직이 또 생기면서 엄치시화가 되어 가지고 서로 우왕좌왕하는, 이래서 신속한 대처를 못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해수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챙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농식품장관님, 지금 FTA 타결에서 실효된 나라가 9개 나라인가요, 서로 발효된 나라, 효력이 발생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12건, 50개 국가 정도 됩니다.

○**이종배 위원** 발효된 나라가 그렇습니까, 발효하고 있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습니까? 검토보고서에 9개 나라라고 되어 있고, 2013년까지 8개 나라 이렇게 됐는데 FTA하면 서로 수출입이 원활해야 되는데 농수산물, 신선 농산물이라든가 식품 가공, 이런 수출이 조금 늘기는 하는데 별로 느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수출 지원에 대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만 신선 농산물이 3500억 정도, 가공식품이 한 1900억 정도해 가지고 지난해보다 다소 늘었는데 는 내용을 보면 대개 원료구매 용자지원비입니다. 일선에서 농산물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지원이 좀 미흡하다 하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수출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 증액할 필요가 없는지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이 aT가 주로 수출 지원을 해야 되는데 aT가 그 역할을 잘 못 한다, 오히려 KOTRA보다도 못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가 수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FTA 되면 특혜관세 받아 가지고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는 영세 수출업체, 농산물은 영세 수출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데는 잘 몰라서 또는 까다로워 가지고 지원이 좀 잘 안 되어서 그냥 일반관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하는 업체 중에서, 수출액 중에서 26.2%만 특혜관세받고 있다, 사실상 다 받아야 되는데,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중요한 지적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FTA를 그동안에 너무 수세적으로만 대응을 해 왔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FTA라면 국가 경제를 위해서 농업 쪽도 방어할 것은 방어하더라도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확장된 세계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탄탄하게 세워서 하나씩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가 있는데도 잘 모르고 있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보 제공, 교육 훈련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고 또 aT가 KOTRA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역할을 좀 더 포커싱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그런데 농업보조금이 줄줄 샌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그로 인해서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사업 시행자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수로 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2010년에서 13년까지 부당 사용한 것이 한 5200건 정도, 1319억이나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농림축산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셨네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이종배 위원** 최근에 하셨는데,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또 세 번 이상 부정으로 받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하겠다고 이런 개정안을 내셨는데 이렇게 강화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농업인들이, 어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영세하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자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자부담 안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농업인 얘기 들어 보면 보조금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자담 능력이 없다, 두 번째 이 보조사업 받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도 이익이 남을 수 있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자신감도 없다 그래서 보조사업 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빚쟁이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보조 비율을 농어업인들에게는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려운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정부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종배 위원** 어업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 10분 주세요.

○**박민수 위원** 박민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일단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4년 예산 전체 13조 6000억 중에 수시배정사업이 7개 1100억 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문제되는 것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니, 이게 전체라고 그러니까.

○**박민수 위원** 이게 전체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박민수 위원** 그래요. 수시배정비율이 이 정도면 진짜 적은 거네요. 그렇지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100억 원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수치로 보면 일단 그렇게……

○**박민수 위원** 1100억 원이면 굉장히 적은 편인데 농림부는 자료 받은 것 같고, 해수부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해수부는 금년도에 20개 사업에 1143억 원이 수시배정에 해당이 됩니다.

○**박민수 위원** 그러면 몇 배 되나요? 농림부의 2배 반 정도 되네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농림부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박민수 위원** 그런데 그 사업 중에 수시배정

때문에 집행을 적은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수시배정이 대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잘 쟁겨지는지 이런 점하고 또 효율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조건들이 잘 이행되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는 건데 아무래도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는 사업들은 좀 연말 가까이 풀리는 경우들이 많고 때에 따라서……

○**박민수 위원** 그런데 지금 묶인 게 얼마나 돼요? 아직 해제 안 된 게 얼마나 돼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지금 해제 안 된 것도 상당히……

○**박민수 위원** 대략……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20개 중의 한 4개 정도……

○**박민수 위원** 나머지는 많이 풀렸네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박민수 위원** 그러면 4개 중에, 핵심적인 사업 중에 안 풀린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그 수시배정이 안 떨어졌던 것이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건립사업, 연안정비사업,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지원사업, 어촌활력 정착지원사업 등입니다.

○**박민수 위원**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사업은 빨리 푸셔야 되겠네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박민수 위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사업이야 좀 늦어져도 되겠지만 장관님께서 관심 가지고 풀어 주셔야……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수 위원** 그다음 진흥청장님,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저희들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국회에서 증액된 6차산업 수익모델 1건이 있습니다. 예산은 30억 규모고요. 배정은 10월 13일 날 최근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예정처에서 분석한 9월 말로는 집행이 전혀 안 된 걸로 분석이 되었고 현재는 반 정도가, 배정된 이후에 한 2주 사이에 14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47% 되어 있고요.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박민수 위원** 청장님, 그것 관련해서 전라북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내려가서 6차산

업 모델 신경 좀 써 주세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알겠습니다.

○**박민수 위원** 산림청장님, 어떻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저희 2014년도 수시배정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1681억 원이고요.

○**박민수 위원** 산림청이 수시배정률이 제일 높네요.

○**산림청장 신원섭** 현재 2월 불용예산 예상 없이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박민수 위원** 그러면 다 지금은 해제됐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민수 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그것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동필 장관님, 질의 좀 할게요.

이것 2015년도 예산안 14조 940억 이게 지금 실링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박민수 위원** 그러면 예년에 보면 우리가 감액 요청한 것은 감액이 되고 증액 요청한 것은 증액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 부분이……

○**박민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감액이 되면 절대로 그것은……

○**박민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액 대응 증액을 해도, 일반 예산 항목에 기금 말고 감액 병행해서 증액을 시켜도 잘 증액을 안 해주는데 기재부가 작년 말에 예산 관련 토론회를 할 때 제가 민주당 대표로 가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분명히 기재부가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별 전체 실링 내부에서 페이고 제도를 확실하게 엄격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때 기재부가 약속했던 게, 제2차관이 그때 약속했던 게 뭐였냐 하면 그러면 부처에서 깎아 오면 부처 내부로 서로 연동하는 건 증액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작년에.

2014년 예산안에 안 됐으니까요 이번 예산에도 우리 위원들도 그걸 좀 관심을 가질 텐데 아까도 식사하면서 몇 가지 논의가 됐지만 중요 핵심 사업 중에 기재부가 좀 탐탁지 않은 사업도, 말하자면 예산에 증가되지도 않고 비율도 늘어나지 않잖아요, 우리 예산은 잘.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페이고 제도를 우리는 확실하

게 지키겠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예산 항목 변경하는 걸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이것 맨날 전체 부처가 그걸 시도를 안 하니까 기재부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 이용·불용 같은 것도 왜 이용·불용 됐냐 예산을 깎겠다라고 계수조정소위에서 회의를 할 때도 차관이 얘기를 못 해요. ‘수시배정 때문에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못 해요, 기재부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 하실 때 5개 부처 전체 다 폐이고 제도를, 우리 부처 내에서의 예산 항목 변동, 금액 순증 없이 항목 변동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기르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예산을 못 늘리면 부처 내의 예산편성의 적정성이라고 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8000억, 몇천억짜리 내려오는 풀예산도 어디어디 구체적인 세부 내역까지 다 기재부가 사실상 관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청장님들이나 여기 장관님들이 풀예산도 재량의 여지를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관님들이나 청장님들께서 편성의 유도리를 가져야지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을 전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기재부는 왜 그걸 안 하느냐, 예산편성 하는 부처 공무원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예산의 일부의 자주성이라도 가지셔야만이, 어차피 실링은 내려오는 건데 그 실링 내부에서 유도리 있게 예산을 여유 있게 집행하고 또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풀예산으로 내려오는 건 무조건 청장님이나 장관님들이 장악을 하셔야 돼요. 어느 도, 어느 군에서 쓰는 것까지 전부 다 관여를 하잖아요, 기재부에서 사전에. 그러면 풀예산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일일이 다 풀어버리는 게 낫지.

예산에 관해서 그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도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나 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 같은 데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주장할 테니까요 청장님들 장관님들께서도 예산의 자주성을 그 3단계로 해 가지고 잘해 주시고, 아무튼 이번 예산에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고 실링보다 한 10%씩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고맙습니다. 상당

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소위에서 좀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 해수부장관님도……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박민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고 저도 그전부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해 오던 사람으로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도 좀 그런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저희 부처 안에서도 그런 대응이 잘되고 또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필 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위원장 김우남 지금 논의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국 논 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한국의 전체 논 면적?

○위원장 김우남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대략 한 80만ha…… 논 면적 전체로 치면 한 96만ha인데 벼를 재배하는 것은……

○위원장 김우남 밭은 얼마나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밭은 그보다는 적습니다. 한 70……

○위원장 김우남 74만ha 되지요? 그런데 지금 각종 FTA를 하면서 손해를 보는 게 밭작물입니까, 논 작물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FTA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영연방 같은 것은 축산하고 밭작물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 한중 같은 경우……

○위원장 김우남 기본적으로 쌀은 FTA에서 양허제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제가 한 10년 계속 주장하는 건데 좀 균형 잡힌 농정이 필요하겠다…… 지금 쌀 제외하고 식량자급률 몇%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쌀을 제외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3.6% 정도 되지요? 자급률이 그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자원을……

○위원장 김우남 농부들이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우남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위원장 김우남 소득이 보장이 되지 않고 경쟁력이 없으니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든지 소득 안정 수단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래서 지난번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 받을 때 2015년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내년 전면 실시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위원장 김우남 여·야·정 합의에 의해서 한 겁니다.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다고요. 한 210억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품목 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26개 품목 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위원장 김우남 원래 계획은 내년부터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전 품목을 다 제 공하기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우남 전 품목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예산이 당연히 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지금 한중 FTA를 앞두고, 지금 타결이 안 됐다고는 하나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것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금년 아니면 내년에 되겠지요. 그랬으면 국민들을 농민들을 실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초에 논 직불금 얼마였습니까? 60만 원 설계할 때 쌀 직불금 40만 원 설계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하면 얼마입니까? 쌀보전직불금 100만 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위원장 김우남 쌀농업 얼마입니까? 40만 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위원장 김우남 150% 차이 나지 않습니까? 전에는 6 대 4의 비율이, 지금 150% 차이가 나요. 이렇게 해서 무슨 식량자급률이 올라가며, 이런 데 좀 장관이 신경을 써 가지고 입법정신에 맞게끔…… 여·야가 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것 하겠다고 해서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맞는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밭에 적용되는 게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있지요? 그거 지금 ha당 얼마입니까? 5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은 어느 것 선택해야 됩니까? 조건불리를 선택해야 됩니까, 밭농업을 선택해야 됩니까, 뭘 선택해야 됩니까?

적어도 이것의 균형이라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74만ha 해 봐야, 10만 원 올려봐야 740억 증액하면 되는 것입니다. 20만 원 올려도 1500억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정부가, 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좀 하십시오.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3.6%, 말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위원장님 지적에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밭농업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중 FTA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각오를 하고 기반 정비에서부터 기계화, 또 밭작물 소득안정 등등 이런 계획들을 차분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국회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남 국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을 거세요, 이번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및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이인제 위원님, 최규성 위원님, 김무성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김우남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이이재 위원님, 윤명희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김종태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유승우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안효대 위원님, 박민수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안덕수 위원님으로

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산심사소위원회는 11월 10일과 11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유성엽 예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 위원명                        | 교섭단체                        |
|-----------------------|----------------------------|-----------------------------|
| 법률안심사<br>(9인)         | ◎안효대 경대수<br>윤명희 이종배<br>홍문표 | 새누리당(5)                     |
|                       | 김승남 박민수<br>신정훈 유성엽         | 새정치민주연합(4)                  |
| 예산안 및<br>결산심사<br>(9인) | 김종태 안덕수<br>이이재 이인제         | 새누리당(4)                     |
|                       | ◎유성엽 신정훈<br>최규성 황주홍        | 새정치민주연합(4)                  |
|                       | 유승우                        | 어느 교섭단체에도<br>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
| 청원심사<br>(7인)          | ◎이이재 김무성<br>윤명희 이종배        | 새누리당(4)                     |
|                       | 김재운 최규성<br>황주홍             | 새정치민주연합(3)                  |

◎표시는 소위원장임

#### ○출석 위원(17인)

경대수 김무성 김승남 김우남  
김종태 박민수 신정훈 안덕수  
안효대 유성엽 유승우 윤명희  
이이재 이인제 이종배 최규성  
황주홍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전문위원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정책기획관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관  
유통정책관

소비과학정책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항만국장  
정책기획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장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장  
세월호피해보상지원단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박수철  
최진호

이동필  
이준원  
오경태  
안호근  
허태웅  
김현수  
김종훈  
김경규  
권재한  
이주명  
이재욱  
민연태  
주이석  
김대근  
고학수  
남양호  
신현관

이주영  
우예종  
문해남  
강준석  
전기정  
임현철  
박준권  
이동재  
방태진  
서장우  
박준영  
이영훈  
정연철  
설인철  
박경기  
황준  
서병규  
지희진  
최준욱

## 농촌진흥청

|           |   |   |   |   |
|-----------|---|---|---|---|
| 청         | 장 | 이 | 양 | 호 |
| 차         | 장 | 라 | 승 | 용 |
| 기획조정관     |   | 기 | 정 | 노 |
| 연구정책국장    |   | 이 | 진 | 모 |
| 농촌지원국장    |   | 이 | 범 | 승 |
| 기술협력국장    |   | 노 | 수 | 현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 박 | 철 | 웅 |
| 총괄본부장     |   |   |   |   |

## 산림청

|         |   |   |   |   |
|---------|---|---|---|---|
| 청       | 장 | 신 | 원 | 섭 |
| 차       | 장 | 김 | 용 | 하 |
| 기획조정관   |   | 류 | 광 | 수 |
| 해외자원협력관 |   | 이 | 창 | 재 |
| 산림자원국장  |   | 김 | 현 | 식 |
| 산림이용국장  |   | 최 | 병 | 암 |
| 산림보호국장  |   | 김 | 현 | 수 |

## 해양경찰청

|          |   |   |   |   |
|----------|---|---|---|---|
| 청        | 장 | 김 | 석 | 균 |
| 기획조정관    |   | 김 | 광 | 준 |
| 경비안전국장   |   | 이 | 춘 | 재 |
| 장비기술국장   |   | 고 | 명 | 석 |
| 정보수사국장   |   | 김 | 두 | 석 |
| 해양오염방제국장 |   | 김 | 상 | 운 |
| 해양경찰학교장  |   | 이 | 주 | 성 |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4. 8. 18 최민희·윤호중·이미경·박주선·  
최재성·박민수·김현미·부좌현·김광진·  
민홍철 의원 발의)

8월 19일 회부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8. 20 김우남·최규성·백재현·정병국·  
이윤석·김광진·박민수·강기정·윤명희·  
김재윤·김영록·장하나 의원 발의)

8월 21일 회부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4. 8. 21 황주홍·백재현·문병호·오제세·  
김승남·임수경·이찬열·박민수·유성엽·  
이원욱 의원 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4. 8. 21 황주홍·백재현·문병호·오제세·  
김승남·임수경·이찬열·박민수·유성엽·

이원욱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22일 회부됨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14. 8. 21 김승남·유성엽·이상직·박주선·  
정성호·임수경·박수현·김재윤·서영교·  
김관영 의원 발의)

8월 26일 회부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4. 8. 26 정희수·최봉홍·김상훈·송영근·  
심학봉·이명수·김태환·이자스민·이노근·  
손인춘 의원 발의)

8월 27일 회부됨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종합적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2014. 8. 27 박원석·정진후·서기호·김제남·  
심상정·이학영·박남춘·김현미·홍종학·  
김기식 의원 발의)

8월 28일 회부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안덕수 의원 대표발의)

(2014. 7. 31 안덕수·유승민·윤명희·조현룡·  
이학재·김용태·박덕흠·이종진·김태원·  
황주홍·윤영석·노영민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14. 8. 28 강기윤·염동열·김희국·김태원·  
김성찬·이한성·이자스민·이에리사·김광진·  
이우현 의원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8. 28 부좌현·황주홍·전순옥·서기호·  
전정희·박홍근·김성곤·임수경·이원욱·  
김동철 의원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14. 8. 28 우윤근·부좌현·이원욱·김성곤·  
강기정·강창일·오영식·이상민·주승용·  
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4건 8월 29일 회부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4. 8. 29 정부 제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  
발의)

(2014. 8. 29 최규성·노영민·김승남·이상직·  
주승용·김윤덕·김춘진·김영록·김현미·  
김우남 의원 발의)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4. 8. 29 최민희 · 김제남 · 정성호 · 임수경 · 김성곤 · 부좌현 · 유기홍 · 김현미 · 민홍철 · 김광진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4. 8. 29 최민희 · 김제남 · 정성호 · 임수경 · 김성곤 · 부좌현 · 유기홍 · 김현미 · 민홍철 · 김광진 의원 발의)

이상 5건 9월 1일 회부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4. 9. 4 강동원 · 서기호 · 김우남 · 남인순 · 장하나 · 황주홍 · 김태원 · 박주선 · 김윤덕 · 김제남 의원 발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4. 9. 4 강동원 · 서기호 · 김우남 · 남인순 · 장하나 · 황주홍 · 김태원 · 박주선 · 김윤덕 · 김제남 의원 발의)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14. 9. 4 김태흠 · 부좌현 · 박윤옥 · 정문헌 · 안덕수 · 박인숙 · 김명연 · 이에리사 · 여상규 · 신성범 의원 발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4. 9. 4 강동원 · 서기호 · 김우남 · 남인순 · 장하나 · 황주홍 · 김태원 · 박주선 · 김윤덕 · 김제남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5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덕수 의원 대표발의)

(2014. 9. 5 안덕수 · 정문헌 · 여상규 · 홍문표 · 유의동 · 심학봉 · 김정록 · 안효대 · 윤명희 · 이명수 · 경대수 · 김종태 · 강석훈 · 홍일표 · 손인춘 · 이현재 · 전하진 · 강기윤 · 이장우 · 이이재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4. 9. 5 정희수 · 송영근 · 이노근 · 이명수 · 김상훈 · 정문헌 · 유의동 · 최봉홍 · 이자스민 · 심학봉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1일 회부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4. 9. 11 유기준 · 심윤조 · 이한성 · 홍문종 · 김상훈 · 이채익 · 장윤석 · 김명연 · 문정립 · 김도읍 · 함진규 · 문대성 · 박윤옥 · 김태환 · 이재영 · 정희수 · 하태경 · 이운룡 · 이학재 ·

강길부 의원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4. 9. 11 유기준 · 이한성 · 홍문종 · 김상훈 · 이채익 · 장윤석 · 박대출 · 김명연 · 문정립 · 김도읍 · 함진규 · 문대성 · 박윤옥 · 김태환 · 정희수 · 하태경 · 이운룡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2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4. 9. 12 황주홍 · 이완영 · 김승남 · 이원욱 · 이찬열 · 부좌현 · 조경태 · 주승용 · 김성곤 · 윤명희 · 정성호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4. 9. 12 황주홍 · 이완영 · 김승남 · 이원욱 · 이찬열 · 부좌현 · 조경태 · 주승용 · 김성곤 · 윤명희 · 정성호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4. 9. 12 황주홍 · 이완영 · 김승남 · 이원욱 · 이찬열 · 부좌현 · 조경태 · 주승용 · 김성곤 · 윤명희 · 정성호 의원 발의)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4. 9. 12 윤명희 · 박윤옥 · 이에리사 · 신경림 · 류지영 · 조명철 · 김상훈 · 손인춘 · 서용교 · 이자스민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15일 회부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2014. 9. 15 김종태 · 이노근 · 윤영석 · 유승민 · 김을동 · 손인춘 · 홍문표 · 송영근 · 이우현 · 정우택 · 김우남 의원 발의)

9월 16일 회부됨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4. 9. 16 박민수 · 김광진 · 전병헌 · 황주홍 · 김우남 · 김성곤 · 유성엽 · 정청래 · 김승남 · 김춘진 의원 발의)

9월 17일 회부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9. 17 김우남 · 임수경 · 김종태 · 김성곤 · 박민수 · 김영록 · 강동원 · 유승우 · 김춘진 · 강기정 · 박남춘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14. 9. 17 김승남 · 윤관석 · 박남춘 · 유성엽 · 박홍근 · 유은혜 · 한정애 · 최규성 · 박주선 · 안규백 · 김관영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14. 9. 17 김승남 · 윤관석 · 박남춘 · 유성엽 · 박홍근 · 유은혜 · 한정애 · 최규성 · 박주선 · 안규백 · 김관영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14. 9. 17 김승남 · 박홍근 · 유은혜 · 한정애 · 인재근 · 황주홍 · 부좌현 · 김관영 · 김성곤 · 정성호 · 최규성 · 남인순 · 이연주 · 박민수 · 박주선 · 안규백 · 박남춘 의원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2014. 9. 17 신성범 · 강기윤 · 여상규 · 박맹우 · 유재중 · 김재경 · 김태흠 · 김을동 · 최봉홍 · 박덕흠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2014. 9. 17 이한성 · 김상훈 · 김종태 · 윤상현 · 정희수 · 유승민 · 류지영 · 이에리사 · 정수성 · 신경림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2014. 9. 17 이한성 · 김상훈 · 김종태 · 윤상현 · 정희수 · 유승민 · 류지영 · 이에리사 · 정수성 · 신경림 의원 발의)

이상 7건 9월 18일 회부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4. 9. 18 김영록 · 강기정 · 강창일 · 김성곤 · 김승남 · 김춘진 · 노영민 · 박주선 · 송호창 · 신정훈 · 안규백 · 유성엽 · 주승용 의원 발의)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4. 9. 18 김성곤 · 박주선 · 주승용 · 김승남 · 안민석 · 김영록 · 박남춘 · 황주홍 · 이개호 · 우윤근 · 신정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9일 회부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4. 9. 19 안효대 · 정문헌 · 김을동 · 이노근 · 신성범 · 박윤옥 · 박대동 · 강길부 · 이채익 · 강기윤 의원 발의)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4. 9. 22 정부 제출)

이상 3건 9월 23일 회부됨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9. 24 정부 제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덕수 의원 대표발의)

(2014. 9. 24 안덕수 · 신동우 · 김종태 · 윤명희 · 박덕흠 · 이종진 · 이강후 · 김춘진 · 이현승 · 홍문표 · 이노근 의원 발의)

**순천만정원 등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

(2014. 9. 24 김광진 · 전병헌 · 변재일 · 김승남 · 이학영 · 정성호 · 박주선 · 주승용 · 추미애 · 김영록 · 강동원 · 김태년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25일 회부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9. 25 김우남 · 부좌현 · 김영록 · 정성호 · 이상직 · 김성곤 · 박주선 · 최규성 · 주승용 · 박민수 · 김춘진 · 박남춘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2014. 9. 25 김종태 · 이노근 · 김장실 · 송영근 · 윤영석 · 손인춘 · 홍문표 · 유승민 · 윤명희 · 이우현 · 김우남 의원 발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4. 9. 25 김한표 · 이한성 · 김정록 · 정수성 · 박윤옥 · 홍지만 · 이강후 · 김태원 · 문정림 · 강기윤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26일 회부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4. 9. 29 이명수 · 문정림 · 이종진 · 염동열 · 정희수 · 박윤옥 · 김제식 · 김을동 · 황인자 · 이강후 의원 발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4. 9. 29 윤명희 · 김우남 · 황주홍 · 박윤옥 · 안효대 · 류지영 · 경대수 · 홍문표 · 김종태 · 김명연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30일 회부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 강동원 · 박민수 · 김제남 · 정성호 · 김광진 · 장하나 · 이개호 · 남인순 · 이연주 · 부좌현 · 유기홍 · 염동열 의원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 강동원 · 박민수 · 김제남 · 정성호 · 김광진 · 장하나 · 이개호 · 남인순 · 이연주 · 부좌현 · 유기홍 · 염동열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 강동원 · 박민수 · 김제남 · 정성호 · 김광진 · 장하나 · 이개호 · 이연주 · 부좌현 ·

유기홍 · 염동열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 윤명희 · 김을동 · 박덕흠 · 심학봉 · 유승우 · 이명수 · 정갑윤 · 정병국 · 홍문중 · 홍문표 의원 발의)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 윤명희 · 류지영 · 김종태 · 유승우 · 이명수 · 정병국 · 정갑윤 · 심학봉 · 홍문중 · 김을동 의원 발의)

이상 5건 10월 6일 회부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4. 10. 8 유기준 · 윤명희 · 함진규 · 이현승 · 홍문중 · 김태환 · 주호영 · 정희수 · 신의진 · 김도읍 · 하태경 · 장윤석 · 강은희 · 이진복 의원 발의)

10월 10일 회부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0. 13 이학영 · 김광진 · 장하나 · 서기호 · 김현미 · 우원식 · 이목희 · 민병두 · 김기준 · 도종환 의원 발의)

10월 14일 회부됨

**수난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4. 10. 14 김성곤 · 정성호 · 부좌현 · 이개호 · 주승용 · 신정훈 · 이인영 · 박남춘 · 임내현 · 박기춘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4. 10. 14 김성곤 · 정성호 · 부좌현 · 이개호 · 주승용 · 신정훈 · 이인영 · 박남춘 · 임내현 · 박기춘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5일 회부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4. 10. 16 강석호 · 박명재 · 문대성 · 이노근 · 박민식 · 이학재 · 신경림 · 류지영 · 김태환 · 강석훈 의원 발의)

10월 17일 회부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0. 20 정부 제출)

10월 20일 회부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0 김승남 · 유은혜 · 한정애 · 인재근 · 황주홍 · 부좌현 · 정성호 · 최규성 · 남인순 · 박민수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0 김승남 · 유은혜 · 박홍근 · 한정애 · 인재근 · 황주홍 · 부좌현 · 정성호 · 최규성 · 남인순 · 박민수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0 김승남 · 유은혜 · 한정애 · 인재근 · 황주홍 · 부좌현 · 정성호 · 최규성 · 남인순 · 박민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23일 회부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 10. 24 정부 제출)

10월 27일 회부됨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0. 28 정부 제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9 김우남 · 김성곤 · 박남춘 · 김동철 · 설훈 · 김춘진 · 김영록 · 부좌현 · 최규성 · 한명숙 · 윤명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30일 회부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0 김우남 · 김성곤 · 김동철 · 설훈 · 김춘진 · 김영록 · 부좌현 · 최규성 · 한명숙 · 강기정 · 윤명희 의원 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0 주영순 · 이개호 · 정성호 · 박윤옥 · 심윤조 · 김정록 · 최봉홍 · 이정현 · 권성동 · 진영 · 김성찬 · 황인자 · 이명수 · 황진하 · 한기호 · 김세연 · 송영근 · 오병윤 · 심상정 · 양창영 · 김용남 의원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0 경대수 · 이종배 · 장윤석 · 문정림 · 김재원 · 이인제 · 윤재옥 · 이완영 · 이완구 · 윤명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31일 회부됨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안**

(2014. 10. 31 정부 제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김우남 · 신정훈 · 최규성 · 김춘진 · 조정식 · 김영록 · 부좌현 · 이윤석 · 조정태 ·

김성곤 · 이석현 · 김승남 의원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김우남 · 신정훈 · 최규성 · 김춘진 ·

조정식 · 김영록 · 부좌현 · 이윤석 · 조경태 ·

김성곤 · 이석현 · 김승남 의원 발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김우남 · 신정훈 · 최규성 · 김춘진 ·

조정식 · 김영록 · 부좌현 · 이윤석 · 조경태 ·

김성곤 · 김승남 · 이석현 의원 발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4. 10. 31 김우남 · 신정훈 · 최규성 · 김춘진 ·

조정식 · 김영록 · 부좌현 · 이윤석 · 조경태 ·

김성곤 · 이석현 · 김승남 의원 발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김우남 · 신정훈 · 최규성 · 김춘진 ·

조정식 · 김영록 · 부좌현 · 이윤석 · 조경태 ·

김성곤 · 이석현 · 김승남 의원 발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김우남 · 신정훈 · 최규성 · 김춘진 ·

조정식 · 김영록 · 부좌현 · 이윤석 · 조경태 ·

김성곤 · 이석현 · 김승남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6.11 정부 제출)

10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0. 27 정부 제출)

10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2014. 10. 23 정부 제출)

10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